

2018 제23차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문화 속 통역과 번역 그 스میم과 짜임

일 시: 2018년 3월 24일(토), 12:30-18:00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3층 소강당

2018 제 23차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문화 속 통역과 번역 그 스میم과 짜임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사	이혜승 회장 (수원대)	
I 문화산업과 통번역 세션 13:10-14:00	좌장 손지봉 (이화여대)	발표	양기찬 (수원대) 번역과 현실, 무대를 중심으로
			승주연 (뿌쉬킨 하우스) 러시아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대본 번역에 관하여
	토론	윤현숙(카톨릭대), 이상원(서울대)	
14:00-14:10	Coffee Break		
II 통번역 전문 세션 14:10-16:20	좌장 조성은 (한국외대)	발표	이 향 (한국외대)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홍설영 (한국외대) 대사관 통번역사의 직무 현황
			한정은 (선문대) 학습자들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2언어 학습동기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동미 (충북대) 미용문화산업에 있어서 번역의 필요성 연구
			이지민 (계명대) "소년이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의 번역 전략 연구
	토론	조재범(경희대), 최경인(충남대), 이유진(단국대), 박소영(서울대), 최진실(계명대)	
16:20-16:30	Coffee Break		
III 신진연구자 세션 16:30-17:50	좌장 원종화 (중앙대)	발표	김지은 (한국외대) 서법 및 화형의 관점에서 본 희곡번역: 차오위(曹禺) <뇌우(雷雨)>의 중한 번역을 중심으로
			최은실 (이화여대) 블렌디드 러닝 번역수업 모형 설계의 구성요소별 고찰
			이준호 (한국외대) 한강 채식주의자의 기계번역 분석 -베르만의 부정적 분석의 틀
	토론	김혜림(인하대), 허지운(이화여대), 최희경(한국외대)	
17:50-18:00	폐 회		

일시: 2018년 3월 24일(토), 12:30-18:0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3층 소강당

번역과 현실, 무대를 중심으로...

양기찬
수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연극전공 부교수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작품에 대한 번역은 이전의 문학작품만을 위한 다소 한정된 번역 작업에서 보다 다양한 현실적이며 현장에 적합한 번역으로 그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일한 형태의 문학작품에서 그 문체, 성격, 가치 등의 작품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다고 고려되었던 이전의 문어체 번역에서 현장성과 일상성을 중요시하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문화적 상징성을 담은 일상적 구어체 번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영상매체에 대한 번역은 극장, tv 등에 상영되던 외국 영화를 관람하던 관객들을 위하여 늘 이루어져왔다. 당시의 번역작업은 대사를 사전적 번역하거나 내용을 임의적으로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이야기와 주제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본 발표는 앞서 지적한 번역작업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더 효율적이며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 질 것인가를 희곡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번역에 있어서 희곡의 번역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 더 질적으로 우수한가를 살피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을 위하여 번역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희곡과 같은 공연 작품에 대한 번역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문학, 희곡 등을 연구한 학자들의 번역이고, 둘째로는 많은 연출가가 외국의 작품을 스스로 번역하여서 올리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번역이다. 학자들의 번역이 사전적 번역에 가깝다고 한다면, 연출가나 작가 등의 현장 전문가에 의한 번역은 문화적 번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문 번역가들 또는 학자들의 번역은 이전의 번역에서 볼 수 있었던 사전적 번역에 기반을 둔 ‘문어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반면 현장에서의 번역은 때로는 문화적으로 다른 작품 세계를 쉽게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의적인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칫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왜곡을 자초할 수도 있다. 두 번역 방식은 그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자들의 번역은 학술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¹⁾ 어떻게 원작이 그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면, 현장 번역은 무대화에 따른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객에게 작품을 쉽게 전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희곡이라는 특성상 두 번역방법의 목적은 현장에서의 무대화이다. 학술적인 번역이 원작의 수용을 위해서 지나친 사전적 문어체 형식을 취하므로 무대에서의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은 시공간적 한계에 적합한 무대화를 목적으로 원작 이야기의 압축 또는 각색 등으로 인해 이야기의 훼손은 물론 관객과의 소통과 이해의 원활함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희곡 작품의 번역에 중요한 부분은 일상적이며 살아있는 대화를 무대화한다는 의미에서 번역된 대사가 관객들에게 문제없이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원작품의 언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존칭²⁾, 작품들의 일상화와 현실성의 강조에 따른 속

1) 많은 전문 번역본들은 작품의 부연설명을 위해서 자체적인 주석을 첨부하고 있다.
2) 프랑스어 ‘Vous’의 번역을 ‘Tu’에 대한 존칭적인 ‘당신’ 등으로 번역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의 ‘you’는 존칭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으며 문화적 콘텍스트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어3)의 사용, 그리고 각기 언어권마다 사용되는 서로 다른 속어4)에 대한 부분 역시 번역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다. 작품에서의 존칭의 활용에 따른 번역은 작품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화적 상징성, 그리고 의의를 전달해야 한다. 번역에 있어서 존칭의 사용은 자칫 원작품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제가 사회적 서열, 인종 또는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 상황 등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은 서열, 인종 등의 구체적인 요인들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 존칭이 존재하는 원어와 도착어의 상호번역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원어와 도착어 중 존칭의 활용이 애매한 대사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른 지위 또는 가족 간의 지위 등에 따른 존칭의 사용이 작품의 의도를 관객에게 모호하게 전달될 수 있다. 특히 무대와 같이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 공간에서의 잘못된 번역은 원작품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주제를 훼손 할 수 있다.

올비의 *Zoo story*에서 피터와 제리의 전반부의 대사는 번역본에서 이야기의 흐름에 긴장감을 조성해주기 위해 상호 존칭과 반말을 섞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만 원본을 살펴볼 때 이러한 동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번역본은 원본의 이야기인 피터와 제리간의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계층에 따른 갈등 구조를 관객에게 쉽게 가늠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리 바로 그거지 보철 마스크 박식한 분이야 그렇죠? 의사이신가요?
 피터 오 아노 어디서 읽었지 타임 잡지에서 보았죠
 (자기 책을 본다)
 제리 그렇지 타임지는 바보들이 볼 책은 아니지
 피터 네 그럴 겁니다

3) 핀터의 *The Homecoming*에서 다음의 대사는 속어 활용의 한 예를 잘 보여준다. 얼음을 속어인 마약과 동의어인 'Rocks'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독자/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즉, Ruth의 'Rocks' Lenny의 'We've got rocks.'에서 rocks를 얼음이 아닌 마약으로 해석해야지만 작품이 지니는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다.

RUTH. We'll, put it in a tumbler.
 (He takes the glass back, pours whisky into a tumbler, brings it to her).
 LENNY. On the rocks? Or as it comes?
 RUTH. Rocks? What do you know about rocks?
 LENNY. We've got rocks. But they're frozen stiff in the fridge
 루스 그래 큰 잔에다가 담아요.
 (레니, 잔을 도로 가져가고 위스키를 큰 잔에 담아 가져온다.)
 레니 얼음이랑 같이?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루스 얼음? 당신이 얼음에 대해서 뭐 알아요?
 레니 우리 얼음 있지. 냉장고에 꽂혀 있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

4) 속어의 번역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적 번역은 원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징성을 관객/독자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밀리의 *Death of a Salesman*에서 'because the woods are burning ...'은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인데 번역을 통해 그 긴박함과 절실함이 느껴지지 못한다.

WILLY: I'm not interested in stories about the past or any crap of that kind because the woods are burning, boys, you understand? There's a big blaze going on all around. I was fired today.
 윌리: 난 지나간 얘거나 쓸모없는 얘기엔 흥미가 없어. 숲 전체가 타오르고 있거든. 사방 천지가 온통 큰 불길에 휩싸여 있다니까. 난 오늘 해고당했다.

제리 (잠시 후) 참 저기가 5번 거리라니 잘됐어
 피이터 (희미하게) 그래요
 제리 난 공원서쪽은 싫단 말이야
 피이터 그래요?(이어 약간 귀찮으면서도 관심이 있어) 왜요?
 제리 (당장/[offhand대수롭지 않게]) 모르겠어

이러한 존칭과 반말의 구조가 없는 원어번역에서 존칭과 반말 구조를 지니는 도착 언어로의 번역은 사전적 번역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영어의 'you'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문화적 콘텍스트에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들을 활용할 것인가 또는 2인칭인 '당신' 등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올비의 피이터와 제리의 대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장을 어떻게 끝낼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오역⁵⁾ 역시 번역본의 무대화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다. 각종 오역은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사들을 구사해야하는 배우가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이 중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객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희곡, 시나리오 등의 공연과 연관을 갖는 작품에 대한 번역은 근본적으로 그 번역될 작품의 문학적 성격에 따라 규정되어져야 된다. 희곡은 기본적으로 공연을 위한 텍스트라고 정의된다. 작품이 품고 있는 성격, 의의 그리고 이를 통해 작품은 작품만의 상징성을 무대를 통해서 재연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희곡작품의 번역은 문학적 더 정확하게 사전적 번역의 틀을 벗어날 때 가능하다.

5) 베케트의 *En attendant godot*에서 자동사를 활용하고 있는것은 번역본에서 보듯이 '시간이 멈추었습니다'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멈추었다는 의미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게 번역되어져야 한다. 작품에서 시간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번역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있지 않아서 작품의 성격과 의의를 독자/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Pozzo: ... Mais il est temp que je quitte, si je ne veux pas me mettre en retard.
 Vladimir: Le temp s'est arrêté
 뽀조: ... 허지만 내가 늦지 않으려면 이제 떠나야겠는걸.
 블라디미르: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La fin de partie*에서 'Il paraît qu'ils sont tout blancs'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 사물에 대한 분간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에서 숙어인 '백색 거짓말(white lie)'을 참고하여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으로 번역하는 것은 지나친 의역이며 자칫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Hamm. -Tu n'as jamais vu mes yeux?
 Clov. -Non.
 Hamm. -Tu n'as jamais eu la curiosité, pendant que je dormais, d'enlever mes lunettes et de regarder mes yeux?
 Clov. -En soulevant les paupières? (Un temps.) Non.
 Hamm. -Un jour je te mes montrerai. (Un temps.) Il paraît qu'ils sont tout blancs. (Un temps.) Quelle heure est-il?
 Clov. -La même que d'habitude.
 햄 ... 너, 내 눈을 본 일이 없지?
 크로브 ... 없어.
 햄 ...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안경을 벗기고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단 말이야?
 크로브 ... 눈까풀을 쳐들고 말이야? (사이) 아니.
 햄 ... 언젠가 보여주지. (사이)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 (사이) 지금 몇 시나 됐지?
 크로브 ... 언제나 같은 시간이야.

셰익스피어의 *Hamlet*은 이러한 문학적 번역이 무대에서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쉽게 보여준다. 다음의 햄릿 대사의 번역은 최종철의 번역이며 이는 다른 번역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즉 다른 번역들이 원어의 직접적인 번역이었다면 최종철의 다음 번역은 번역가의 철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Ham.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

햄릿6)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를 화살에 맞는 건가, 아니면
(...)

위에서 볼 수 있는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 번역의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무대번역이 배우를 통해서 관객에게 대사를 전달하기 위한 번역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To be, or not to be'의 번역인 '있음이나 없음이나'는 무대 번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 인용된 대사의 전체를 두고 살펴볼 때 더 명확해진다. 주인공인 햄릿의 심리를 묘사해주는 대사로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대사이지 철학적 '사이(pause)'가 필요한 대사가 아니다. '삶과 죽음'의 직접적인 관계와 햄릿의 선택이 갖는 의미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셰익스피어가 담고자 하는 주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관객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 즉 빛, 움직임, 각종 음향 그리고 대사를 직접적으로 전달 받기를 원하며 모아진 상황과 현황을 종합하여 무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즉 관객은 연극을 관람할 때 수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있음이나 없음이나'는 그 번역이 원작가의 철학적 의도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대와 관객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는 번역이다. 이러한 번역은 오역 아닌 오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번역가로서 항상 주의해야만 한다.

핀터의 *The Caretaker*에서는 무대를 위한 임의적인 함축적 용어가 원작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함축과 각색은 대사의 전달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왜곡 시킬 수 있다.

6) 최종철은 본 햄릿의 번역을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역자가 <사느냐 죽느냐>로 옮겼다(최재서의 <살아 부지할 것인가, 죽어 없어질 것인가>와 이덕수의 <과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강우영의 <삶이나 죽느냐>는 예외이다). 그런데 원문의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를 포함하는 존재와 비존재를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독백이 살고 죽는 문제를 처음부터 단조직입적으로 명시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모호하며 지극히 함축적인 일반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사의 선택으로 옮김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원문의 뜻에 가장 적합한, 한자가 아닌 우리말은 <있다>와 <없다>의 적당한 변형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말의 <있음>과 <없음>에 아직 역사적, 그리고 존재론적 무게가 충분히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의 힘은 적절한 표현의 쓰임에서 나오므로 햄릿의 <있음이나>를 영어의 <to be>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구절로, <없음이나>를 <not to be>에 해당하는 구절로 옮겨보았다. 우리말의 <있음>과 <없음>이 아직 완전한 명사로 굳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한자 개념을 쓸 경우에는 <존재하느냐 마느냐> 식이 될 것이다.” (최종철 2009 94)

Davis. Ten minutes off for tea-break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at place and I couldn't find a seat, not one. All of them greeks had it. Poles, Greeks, Blacks, the lot of them, all them aliens had it. *And they had me working there ... they had me working ...*

데이비스. 거기에서는 한밤중에 10분간 티타임이 있었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었소. 회랍놈들이 모두 가져갔거든요. 폴란드놈, 회랍놈, 캄둥이들 모두 외국 녀석들 판이라니까요 ... 이 늙은이를 부러먹다니 ...

원문의 'tea-break' 그리고 'And they had me working there... they had me working...'을 '티타임' 그리고 '이 늙은이를 부러먹다니'로 번역되어있다. 두 번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번역에서의 오류가 전체적인 원작의 의도와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tea-break'는 자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티타임' 보다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잠시 일을 멈추는 '휴식 시간'으로 'And they had me working there... they had me working'은 '나보고 거기서 일을 하라하다니...' 정도로 번역이 되어져야 원작이 의도하고 있는 상징성 등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번역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티타임'과 '늙은이'는 번역가가 데이비스가 늙은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사 전달에 있어서 함축적인 의도를 전달하고자 임의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보여지지만 원작을 번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원작의 상징성과 의도가 사라질 수 있다. 데이비스가 이민자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감 그리고 단순 노동 인력 시장에서 점점 많아지는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적 갈등을 관객에게 던지고자하는 원작의 의도를 번역은 전혀 살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희곡 번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리듬/운율에 내포된 원어 문화권의 언어적 유희를 어떻게 도착어에서 반영할 것인가이다. 프랑스 고전주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운율이 언어의 미적 울림을 위한 규격화된 수사학적 표현 형식, 규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셰익스피어 희곡에서의 운율의 활용은 감상적/감정적 성격을 가지는 추상적 대사를 연출의 입장에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시적 대사는 작품에서 사랑, 공포, 황홀 등의 추상적이며 감정적인 심정을 등장인물들의 대사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이러한 운율의 활용은 관객들에게 작품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된다. 이렇듯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운율의 문제가 작품의 이해,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이기에 운율의 번역은 단순 대치가 아닌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운율의 번역에 대한 문제점은 셰익스피어의 *A Midsummer Night's Dream*의 두 번역본인 오세곤 번역본과 최종철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서 운율의 번역에 대한 번역가들의 고민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두 번역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는 무대화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문학적인 측면의 전달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⁷⁾ 두 번역

7) 셰익스피어 원문과 두 번역의 비교를 통해서 관객/독자는 번역의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ermia So will I grow, so live, so die my Lord,
I will yield my virgin patent up
Unto his lordship, whose unwished yoke,
My soul consents not to give sovereignty.(Penguin Popular Classics, 23)

헤르미아 차라리 그렇게 살다 죽죠.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처녀성을 넘기고

작품 모두 원작이 가지고 있는 느낌/취향을 각각 무대를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각각의 전달 형식에 적합하며 독자, 관객에게 익숙한 서로 다른 운율 형식을 각기 활용하고 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듬/운율’은 본질적으로 원작의 문화를 반영하

지배와 속박에 묶이느니.(오세곤 16)

허미아 전하, 저의 처녀 특권을 내놓기 이전에
 저는 그리 살다가 그리 죽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이 남편의 반갑잖은 명에에
 지배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최종철 15)

두 번역의 차이는 동일한 내용을 번역하고 있지만, 원작의 의의와 상징성을 전달하는 양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두 번역 모두 원어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문단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곤 번역본에서 원작의 이야기의 진행 순서와는 다르게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때의 일상적 대화를 기준으로 이야기의 진행 순서를 많은 부분 수정하였다고 한다면, 최종철 번역본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원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어휘 배치와 선택의 문제, 문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미의 전달 모두 번역의 목표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이다. 오세곤 번역본이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직설법적인 번역을 추구하고 있다면, 최종철 번역본은 독자가 작품을 음미하면서 탐독할 수 있는 문학적 번역인 것이다. 오세곤 번역본의 특징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관객에게 이야기의 전달을 매우 용이하게 해준다. 이와는 반대로 최종철 번역본의 특징은 원본의 시적 흐름을 살리고자 한 점에서 원본이 지니는 미학적인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율과 고전적 어휘의 선택은 작품에 심취하여 음미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데 문제가 없지만,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희곡은 무대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해야 한다는 희곡의 일회성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대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8) 다음은 운율의 번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는 두 번역본의 예다. 영어에서의 운율을 한국어에서 재현하기에는 문화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오세곤 번역본에서는 4:3으로 최종철 번역본에서는 7:3으로 원작의 시적 리듬을 활용함으로써 운율이 지니는 작품에서의 상징성을 번역본에 담고자 함을 볼 수 있다.

Lysander Or if there were a sympathy in choice,
War, death, or sickness, did lay siege to it;
Making it momentary, as a sound;
Swift as a shadow, short as any dream,
Brief as the lightning in the cullied night,
That (in a spleen) unfolds both heaven and earth;
And ere a man hath power to say, Behold,
The jaws of darkness do devour it up;
So quick bright things come to confusion.

리산데르 또 설령 서로 결합이 돼도,
전쟁이나 죽음, 질병 등의
휘방으로, 소리처럼 금방,
그림자처럼, 꿈처럼 빨리,
찰나에 천지를 드러내는
어두운 밤 번개처럼 짧게,
아차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내 암흑 속에 사라지니,
원래 광명은 쉬 끝나는 법.
(오세곤 번역본에서는 운율을 4:3으로 재해석 하였다)

라이샌더 아니면 선택하는 마음은 일치해도
전쟁이나 죽음 또는 질병이 사랑을 공격하여
그것을 한순간의 소리처럼 덧없게
그늘처럼 빠르게, 꿈처럼 짙막하게 아니면
팡하고 터지며 하늘과 땅 양쪽에 밝힌 뒤
누군가 "저것 봐라!" 말하기도 이전에

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도착어가 원어와 다른 문화권이고 구조이기에 운율의 직접적인 반영은 불가능하다. 물론 단어들의 대체나 함축을 통해서 비슷한 운율을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원본의 느낌/취향을 동일하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번역은 원어에서 도착어로 옮겨지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무대 번역에서의 문화 등의 요소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대상이 독자가 아닌 관객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원작품을 스스로의 편의에 따라 조절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관객은 무대를 통해서 어떠한 반복도 없이 일회성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번역이 자칫 철학적, 문학적일 때 내용의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대 번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영상에서 사용된 번역의 재활용이다. 영화에서의 자막은 영화에 맞추어져 각색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줄거리와 주제가 원작 희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상이나 연극이나 어투, 상황 하나하나에 따라 변화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극에서의 영화 자막의 재활용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둠의 아가리가 꿀꺽 삼켜 버리는
칠혹 밤의 번개처럼 짧아지게 만들어
빛나는 것들을 이처럼 너무 빨리 소멸해.

(최종철 번역본에서는 운율을 7:3으로 재해석 하였다)

9) 영화 *Twelve Angry Men*에서 결말을 장식하는 본 대사는 원작인 희곡의 대사가 많은 부분이 각색되어져있다.

Juror3: 모든 것. 저 법정에서 나왔던 모든 것이 죄를 증명한다고. 아래층에 사는 노인이 모든 걸 다 들었다고 했잖아. 그 칼..? 그래 저 친구가 비슷한 것을 찾았다고? (8에게) 당신은 그가 문까지 못 갔다고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 여기서 실컷 찢도록 거리고 시간을 썰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토대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 있다고! 그래, 그 안경. 그 여자가 안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지? 다 상상력 아냐? 그녀는 증언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야. 이게 이번 건의 모든 거라고. 그 애가 소리 지른 것? 죽어버릴거야 맞지요? 아버지에게! 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라고 다들 왜 이래! 난 칼로 찢러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나에겐 권리가 있어! 난 내 의견을 고수할 권리가 있다고!!

러시아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대본 번역에 관하여

승주연 (뿌쉬킨하우스)

1. 왜 '보리스 고두노프' 인가?

***오페라 시연 <https://www.youtube.com/watch?v=IsFuo5uNu6Y&feature=youtu.be>**

뿌쉬킨의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된 오페라는 100여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오페라들은 현재까지 러시아 국내외에서 주요 러시아 오페라 레퍼토리로 공연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리스 고두노프'는 1913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73회나 공연되었는데,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레퍼토리 중 30위로 '사랑의 묘약'과 '투란도트' 등 주요 이탈리아 오페라 레퍼토리와 비슷한 수준이다.¹

하지만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황실극장의 공연검열당국은 작곡가가 쓴 초고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성배역이 거의 없고, 너무 우울하며 형식이 지나치게 낯설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작곡가는 대대적인 개정안을 1872년에 완성하고, 그 이후에도 삭제와 수정을 거듭한 후 1872년에 피아노-보컬스코어가 정식으로 출판이 되었으며, 이 1872년본을 '원전판'이라 부른다.

작곡가 사후인 1896년에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상당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무대에서 해당 오페라를 선보이게 된다. 이 버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공연되어 온 '표준판'이다.²

그렇다면,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왜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적 오페라로

¹ 신영선 (201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러시아 연구 제 27권 제 1호』, 168쪽

² 신영선 (201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러시아 연구 제 27권 제 1호』, 170쪽

칭송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소르그스키가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 방식을 과감하게 외면하고,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의 언어적 차이를 차치하고도 '보리스 고두노프'에서 작곡가는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듣기 좋고 세련된 아리아 대신 거칠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의 아리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³

뿌쉬킨의 희곡에 기반을 둔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 오페라 중 가장 많이 공연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며, 해외 무대에서는 자주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 오페라단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다⁴. 따라서 국립오페라단의 '보리스 고두노프'는 대한민국 오페라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공연이다.

2. '보리스 고두노프'에서 직역과 의역이란?

'보리스 고두노프' 리브레토 번역을 가장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리브레토의 번역이 의역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는 오히려 의역 보다는 직역의 비중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직역이란 '외국어로 된 말이나 글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함. 또는 그러한 번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또한 직역이란 원작을 중시해서 원작과 등가적인 번역을 해야 한다는 '등가성'이론 즉, 출발어 중심의 번역이론을 대변하며, 독자를 중시해서 독자에게 수용 가능한 번역을 해야 한다는 '수용성' 이론, 즉 도착어 중심의 번역이론의 결과물이다.⁶

위의 두 가지 정의 모두 직역은 '문장' 단위의 번역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³ 백남옥(2007) 『오페라 로만티카』, 북스페인, 333쪽

⁴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28년만에 한국 공연',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7. 03, 23, <http://news Joins.com/article/21397818> (검색일: 2018.03. 12)

⁵ 출처: 네이버 국어 사전

⁶ 한국문학번역원(2007), 『문학번역의 이해』, 북스토리 , 31쪽

하지만, '보리스 고두노프' 리브레토의 직역이란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어 하나 하나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직역은 악보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오페라 가수들이 연습할 때에 활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보리스 고두노프' 리브레토 번역의 어려움

뿌쉬킨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관례에 비해 지문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매우 다양한 시공간과 많은 등장인물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출판본에서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뿌쉬킨 당대에는 구멍투성이 텍스트라는 비판을 면치 못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영화적인 특징으로 제작진이 채워 넣어야 할 빈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⁷

리브레토의 구성에서 지문 비교

프롤로그 : 1598년, 민중

1장 노보제비치 수도원 뜰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노보데비치 수도원 안뜰 관객석과 가까운 쪽 -작은 망루가 달린 수도원 벽에 출입구가 있다. 군중들 모여 있다)

2장 크레믈린 광장 (모스크바 크렘린에 있는 광장. 관객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궁전의 붉은 색 현관 계단이 있고, 무대 앞부분 오른쪽에서는 군중들이 우스펜스키 성당과 아르항겔스키 성당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성당들의 입구가 보인다)

1막: 1603년, 그리고리

⁷ 신영선(201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러시아연구』, 제 27권 제 1호, 171쪽

1장 추도프 수도원의 방 밤. 추도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방.

(피멘이 등잔불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다. 그리고리는 자고 있다.)

2장 리투아니아 국경의 술집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 여관)

2막 : 황제의 궁전, 보리스 (모스크바 크렘린. 황제의 궁전 안에 있는 호화스러운 어느 방. 크세니아는 약혼자의 초상화를 보면서 울고 있다. 황태자는 커다란 지도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 유모는 뜨개질을 하고 있다)

3막 : '폴란드' 장면, 그리고리

1장 마리나의 의상실 (산도미시에시에 있는 마리나 므니세크의 파우더룸. 마리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마리나는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다.)

2장 밤, 정원, 분수 (산도미시에시에 있는 므니세크의 성. 정원. 분수, 달밤. 참칭자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4막: 1604년

1장 바실리 사원 (크로미 근처 숲 속 공터. 오른쪽으에는 비탈길이 있고, 그 뒤에는 도시의 성벽이 있다. 비탈길로부터 무대를 가로지르는 길이 나있다. 앞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다. 비탈길 바로 옆에는 커다란 그루터기가 있다.)

(한 무리의 부랑자들이 무대 뒤에서 비명을 지른다. 비탈길을 따라 한 무리의 부랑자들이 뛰어들어온다. 무리는 밧줄에 묶인 귀족 흐루시초프를 끌고 오고 있다.)

2장 황제의 궁전 (모스크바 크렘린에 있는 넓은 연회장. 양쪽에는 벤치가 놓여있다. 오른쪽에는 정문 계단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고, 왼쪽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있다. 오른쪽에 무대 난간 쪽에 더 가까운 쪽에는 필기도구가 놓여있는 책상이 있다. 왼쪽에는 황제의 자리가 있다. 긴급 귀족 회의가 열리고 있다. 막이 오른다)⁸

⁸ 2017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공연한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프로그램북

장소의 이동을 주시해보면, 프롤로그 1장에서는 노보제비치 수도원 뜰에 있다가, 2장에서는 크레믈린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며, 1막 1장에서는 추도프 수도원의 방으로 옮겼다가 2장에서는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게 된다. 2막에서는 황제의 궁전에서 사건이 전개되며, 3막 1장에서는 마리나 므니세크의 파우더룸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된다. 3막 2장에서는 정원으로 장소를 옮겼다가 4막 1장에서는 바실리 사원으로 가며, 2장에서는 황제의 궁전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물론 장소의 이동만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비어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번역을 할 때나 오페라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작에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관객들은 불연속적으로 열거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벌어진 일을 논평에 의지하여 스스로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리브레토에서는 이러한 논평마저 거의 삭제되었으므로 장면 사이의 불연속성은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오페라는 무대의 스케일과 음악의 효과로 인해 전후 맥락 보다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순간에 고도로 집중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논평의 삭제는 원작의 불충분한 동기화와 비약을 심화시키고 거리두기-말하기의 요소가 사라진 자리에 직접 보여주기를 배치함으로써 각 장면에 대한 몰입을 만들어낸다.⁹

하지만 이렇게 사이 사이에 비어있는 논리 혹은 논평이 리브레토를 번역하는 역자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역자는 장과 장, 막과 막 사이에 빠진 논리, 시간적 혹은 공간적 연속성을 오페라 관객 전에 먼저 고민하고 번역에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4. 번역의 순서

⁹ 신영선(201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러시아연구』, 제 27권 제 1호, 181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번역은 크게 직역과 의역으로 나뉜다. 그리고 의역이 감수를 거치면서 프로그램북에 들어가는 최종본이 되며, 이는 동시에 공연 자막이기도 하다.

번역의 순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단어 하나 하나를 직역한다.
2. 국립오페라단에 직역한 것을 막 단위로 보낸다.
3. 국립오페라단에서 직역한 것을 악보에 적어넣는다. (사실 국립오페라단 직원들에게 러시아어는 그림일 뿐)
4. 국립오페라단 직원들이 직역을 악보에 반영하는 동안 의역 작업을 한다.
5. 의역본을 국립오페라단에 보낸다.
6. 의역본을 감수한 후 프로그램북에 신고, 공연시 자막으로 활용한다.

[직역의 예]

На кого ты нас покидаешь, отец наш!
위하여 누구를 당신은 우리를 버리나йка, 아버지 우리의!

[직역을 악보에 반영한 예]

5 Poco meno mosso (Moderato) ♩ = 92
 관중들 굽는 다 무릎을
 Сопразо (Народ на коленях)

ХОР Альты На ко-го ты нас по-ки да-ешь, о-тец наш!
 위하여 누구를 당신을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5 Poco meno mosso (Moderato) ♩ = 92
 Cor., Cl.
 Cor., Fag. *mf*

М. 16067 Г.

[의역의 예]

На кого ты нас покидаешь, отец наш!

우리 아버지, 당신은 누구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프로그램북 버전]

На кого ты нас покидаешь, отец наш!

우리 아버지, 당신은 누구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5. 300년 전 러시아 시대상을 반영하는 오페라의 리브레토 번역이란...

처음에 번역을 의뢰받으면서 받은 악보는 사실 최종 문자 개혁이 있기 전의 러시아어로 작성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보에 있는 가사를 읽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인을 통해 악보를 받았고, 받은 악보를 오페라단에서 스캔본을 다시 보내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립페라단에서 보낸 스캔본의 리브레토와 악보에 적힌 가사가

군데 군데 일치하지 않았기에 번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리브레토와 악보를 확인해야 했고, 작업하는 중간에 일부 악보를 바꾸는 바람에 그 부분 번역을 다시 했던 일은 뒤돌아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동일한 마디에 4성부(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테너)가 그려져있는데, 그들의 가사가 모두 다를 때이다. 오페라 가수들은 각자 자기 파트를 부르지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밖에도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리브레토 번역의 어려움은 해당 오페라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러시아를 지배했던 실존인물 보리스 고두노프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라는 점이다. 21세기의 러시아도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무려 300년 전의 러시아의 모습을 한국의 관객에게 전달하는 리브레토 번역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6. 나가며...

오페라의 세계는 이른바 3대 기둥(필라)이 있다. 세계 오페라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학파라고 말할 수 있는 기둥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그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권역이므로 독일+오스트리아로 표기한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 유럽국가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찬란하게 생산되었으며 세계 오페라 연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동유럽 여러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라는 커다란 필라에는 가려져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최초로 국립오페라단에서 러시아 오페라 공연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오페라단의 '보리스 고두노프' 공연 리브레토를 번역하면서 사실 리브레토 번역 외에도 오페라 디션, 예술감독 인터뷰 통역 등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숙히 '보리스 고두노프' 공연에 관여를 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번역가와 러시아어를 모르

¹⁰ 백남옥(2007) 『오페라 로만티카』, 북스페인, 25쪽

는 국립오페라단 직원들이 힘을 합쳐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최초로 러시아 오페라 대작인 '보리스 고두노프'에 도전하였고, 국내외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수준 높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하지만, 관객들이 오페라를 보면서 내용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부담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뿌듯했던 작업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백남옥(2007) 『오페라 로만티카』, 북스페인

한국문학번역원(2007), 『문학번역의 이해』, 북스토리

송원진(2015), 『러시아 문학과 오페라』, 인간과 문학사

신영선(2017),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 연구」, 『러시아연구』, 제 27권 제 1호, 167-194쪽

네이버 국어 사전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942600>, 검색일 2018, 03, 12)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시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sFuo5uNu6Y&feature=youtu.be> (검색일: 2018, 03, 17)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프로그램북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의역본

보리스 고두노프 악보 표준판(직역 포함)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이 향
(한국외대)

1. 번역윤리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 번역학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화두중 하나이다. 유수의 국제학술지들이 앞 다투어 윤리를 테마로 한 특별호¹⁾를 기획하였고 윤리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저서들도 출간되어 왔다. ‘윤리(Ethic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Pym의 협력(Cooperation) 개념, Baker의 내러티브 이론(Narrative Account), Berman의 ‘문자의 번역(Traduction de la Lettre)’, Venuti의 이국화 전략(Foreignization)을 관통하는 화두는 번역이 낯선 타자(의 언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시 통번역이, 혹은 통번역의 수행 주체인 통번역사가 세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번역윤리’라는 것은 실제로 통번역의 역할,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통번역사의 개입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번역에 대한 논의가 좁은 의미에서의 텍스트를 넘어 번역을 둘러싼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일이다. Cultural Turn, Polysystem, Sociological Approach, Post-Colonial Translation Studies 등이 이러한 번역학의 외연확장의 징후이자 결과물이며, 그 확장의 종착지가 번역윤리인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다. 윤리 문제는 분쟁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통역하는 전시 통역사에게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통번역이 사회문화적 행위의 산물이라면, 통번역사가 취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 결정일 수 없을 것이며, 통번역사가 늘 단순한 ‘중립적 매개자’로 남을 수 만은 없다. 억울한 이민자를 통역하는 법정통역사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현장을 통역하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상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통역과 번역은 때로는 일련의 ‘윤리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1) 2001년, *The Translator* 7(2), ‘The Return to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
2004년,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17(2), ‘Translation, Ethics and Society’, 2010년, *The Translator* 16(2), ‘Translation and Violent Conflict’,
2011년,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1), ‘Ethics in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3 그런데 번역학계에서 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통번역사들을 위한 직업윤리, 혹은 윤리현장의 내용은 몇십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장의 직업윤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학계의 번역윤리론은 대체 어떤 쓸모를 가지는가. 이 당혹스런 물음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4. 국내외의 상황을 대강 살펴보자. 우선 국내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 통번역사 강령이나 헌장은 대체로 해외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거나, 이미 베낀 것을 다시 베낀 것이다. 한 예로 한국번역가협회(Korean Society of Translators) 홈페이지에 있는 윤리강령은 국제번역가연맹(FIT)이 1963년 제정하여 1994년 수정한 번역사 헌장(Translator's Charter)을 한국어로 옮겨 놓은 것이고, 기타 번역 에이전시들의 경우는 대체로 윤리관련 언급이 없거나, 혹은 품질관리, 보안 유지 등 실무적 차원의 지침을 담은 간단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신지선 2012). 해외의 경우, 개별 국가를 대표하는 통번역사 협회 차원에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²⁾

5. 현재 국내외의 통번역사 직업윤리 관련 규정들을 일별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명칭상의 혼란이다.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를 명명하는 방식은 기관별로 다양하다.

-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Business Practic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ATA), 2002³⁾,
-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stitut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UK, 2005,
- 「Code de Déontologie, Associatio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France」 (ATLF) ⁴⁾,
-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IIC(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2012,
- 「Code of Ethics」, NAJIT(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

2)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FIT 헌장에는 ‘모든 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충실한 번역은 직역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실성’, ‘직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3) 2002년, 통번역 관련 단체 중 최초로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를 발표한 미국번역사협회(ATA)는 2009년 이를 Code of Ethics로 변경한다(참고 Drugan & Megone 2011: 186). 현재 ATA 홈페이지에는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가 실려 있다.

4) ATLF는 프랑스문학번역가협회(Associatio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France)로 1973년 창설되었다.

Translators)

직업윤리 규정에서 통번역은 때로는 profession, 때로는 practice, 때로는 business 로 지칭된다. 협회의 구성원도 국제회의 통역사(AIIC), 문학번역가(ATLF), 법정통역사(NAJIT) 등으로 다양하여, 해당 윤리규정이 특정 분야의 통번역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규정상의 ‘translators’가 통번역사를 모두 지칭하는지 여부가 종종 불분명한 것은 물론이다.

6. 번역윤리 문제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가 현장의 통번역사들을 위한 ‘직업윤리’에까지 닿지 못한 것은 번역학 안에서 윤리 문제가 주로 ‘문학번역’의 틀속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Steiner⁵⁾에서 시작하여 Berman, Venuti 로 이어지는 문학번역의 윤리담론은 원전의 가치와 ‘낯섦’을 보존하는 것이 번역의 그리고 번역자의 윤리라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Chesterman은 ‘재현(representation)의 윤리’로 분류⁶⁾하는 이러한 윤리론은 현장의 직업윤리로 번역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던 것이다.

7. 통번역사들을 위한 직업윤리를 ‘업데이트’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 직업윤리는 여러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겠으나 하위의 가치체계는 상위의 가치체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통역사나 문학번역가의 직업윤리는 통번역사 일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상위의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번역사의 윤리, 혹은 국제회의통역사의 윤리보다는, 통번역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위의 윤리원칙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통번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8. 새로이 논의될 직업윤리는 적어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는 안된다. 문화간 소통자로서의 통번역사의 역할을 폭넓게 규정하되 다른 직업에는 없는 통번역 업무의 특수함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둘째, 통번역사의 직업윤리는 지나치게 협소해서도 안된다. 법정통역, 커뮤니티 통역 등을 넘어서서 통번역사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Goodwin(2010)은 번역학에서 윤리담론의 시초를 Steiner로 본다. Steiner와 관련된 논의는 이항(2017)을 참조한다.

6) 번역학 내의 기존 이론들을 윤리라는 키워드로 포괄적으로 정리, 분류한 연구로는 Chesterman(2001), Goodwin(2010), 그리고 Chesterman의 논의를 정리, 요약한 신지선(2012)을 참고한다.

셋째, 연구자들 뿐 아니라 실무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단순히 의무나 권리를 나열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통번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통번역의 가치, 통번역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9.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우리는 2001년 Chesterman이 발표한 ‘Proposal for a Hieronymic Oath이다(히에로니무스 선서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0. 「히에로니무스 선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히에로니무스 선서를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직업윤리 선서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려보자.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어로 작성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담은 선서문으로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직업윤리 헌장으로 종종 인용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교훈이나 강의 다른 모든 교육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이 지식을 나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의 은사들에게, 그리고 의학의 법에 따라 규약과 맹세로 맺어진 제자들에게 전하겠노라. 그러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하지는 않겠노라.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요청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바위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자(혹은 출산하는자)를 베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자에 의해서는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결석 환자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 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맹세를 깨트리지 않고 지낸다면,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11. Chesterman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착안하여, 번역가의 성인인 히에로니무스의 이름을 딴 「히에로니무스 선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선서를 지킬 것을 맹세한다.
I swear to keep this Oath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judgement. [Commitment]

2. 나는 번역사라는 직업과 그 역사에 충실한 일원이 될 것을 맹세한다. 나는 기꺼이 나의 전문적 능력을 동료들과 나눌 것이며 후배들에게 전수할 것이다. 나는 비합리적인 번역료를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며 번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swear to be a loyal member of the translators' profession, respecting its history. I am willing to share my expertise with colleagues and to pass it on to trainee translators. I will not work for unreasonable fees. I will always translate to the best of my ability. [Loyalty to the profession]

3. 나는 언어 간 장벽을 넘어서 소통을 극대화하고 오해를 최소화하는데 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I will use my expertise to maximize communication and minimize misunderstanding across language barriers. [Understanding]

4. 나는 나의 번역이 원문을 부당한 방식으로 재현하지 않음을 맹세한다.
I swear that my translations will not represent their source texts in unfair ways. [Truth]

5. 나는 개별 번역작업의 여건에 따라, 독자들이 나의 번역에 최대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독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I will respect my readers by trying to make my translations as accessible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translation task. [Clarity]

6. 나는 고객의 업무상 기밀을 존중할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납기일을 존중할 것이며 고객의 지시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
I undertake to respect the professional secrets of my clients and not to exploit clients' information for personal gain. I promise to respect deadlines and to follow clients' instructions. [Trustworthiness]
7. 나는 나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정직할 것이다. 나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업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be honest about my own qualifications and limitations; I will not accept work that is outside my competence. [Truthfulness]
8. 나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고객에게 알릴 것이며, 의견충돌이 있을 시에는 중재에 동의할 것이다.
I will inform clients of unresolved problems, and agree to arbitration in cases of dispute. [Justice]
9. 나는 번역에 필요한 언어적, 기술적 능력을 비롯한 기타 지식과 스킬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will do all I can to maintain and improve my competence, including all relevant linguistic, technical and other knowledge and skills. [Striving for excellence]

12. Chesterman의 위 논문이 발표되고 5년이 지난 2006년, Pym은 Chesterman을 인터뷰⁷⁾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묻는다.

“당신이 현장의 번역사들에게 큰 도움을 못주었다고 누군가 비판한다면, 히에로니무스 선서를 제안했다고 반박할 건가요?”

Pym의 짓궂은 질문에 체스터만은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한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번역사 협회⁸⁾에서 히에로니무스 선서를 반영하여 직업윤리강령을 손보았으며, 많은 실무자들로부터 덕분에 통번역의 윤리적 차원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한다.

13. 「히에로니무스 선서」가 제안된 것이 이미 오래전이고, 이것이 유럽의 번역학자

7) Andrew Chesterman interviewed by Anthony Pym in Tarragona, January 20, 2006 (<https://www.youtube.com/watch?v=jm-9IbNVTj8>). 게시일(2014.11.5.)

8) Chesterman은 해당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선서는 어디까지나 논의의 ‘출발점’일 뿐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4. 첫째, 히에로니무스는 번역의 성자이다. 따라서 위의 선서에서 등장하는 ‘번역 (translator)’ 혹은 ‘번역사(translator)’는 통역이나 통역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선서의 4항에 등장하는 ‘source texts’, 6항에 등장하는 ‘deadlines’등의 표현들이 그런 의심의 근거이다. 그러나 그 밖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통번역에 고루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별개의 직업윤리 선서를 마련할 만큼 본질적으로 다른가? 만일 그렇다면 두 개의 별도의 선서(예를 들어 번역사들을 위한 「히에로니무스 선서」와 통역사를 위한 「헤르메스 선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혹은 위의 선서에서 번역과 관련된 표현들을 통번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

전문 통번역사를 위한 히에로니무스 (혹은 헤르메스) 선서

1.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선서를 지킬 것을 맹세한다.
2. 나는 **통번역사**라는 직업과 그 역사에 충실한 일원이 될 것을 맹세한다. 나는 기꺼이
3. 나는 언어 간 장벽을 넘어서 소통을 극대화하고 오해를 최소화하는데 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통번역**이 원문, **혹은 원 발화자**를 을 부당한 방식으로 재현하지 않음을 맹세한다.
5. 나는 개별 **통번역**작업의 여건에 따라, 독자 **혹은 청자**들이 나의 **통번역**에 최대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독자**와 청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6. 나는 고객의 업무상 기밀을 존중할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번역 업무에 따른 납기와 기타 일정**을 존중할 것이며 고객의 지시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
7. 나는 나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정직할 것이다. 나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업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8. 나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고객에게 알릴 것이며, 의견충돌이 있을 시에는 중재에 동의할 것이다.
9. 나는 **통번역**에 필요한 언어적, 기술적 능력을 비롯한 기타 지식과 스킬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계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번역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는 통번역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6. 학계와 현장의 논의를 거쳐 통번역사 직업윤리 선서가 완성된 후에는, 이를 번

역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지선. (2012). 「국내 번역윤리규정의 현황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 고찰」. 『T&I Review』. 2, 113-128.

이향. (2017).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Baker) vs 핼(Pym)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3), 207-226.

Chesterman, A. (2001). Proposal for a Hieronymic Oath. *The Translator*, 7(2), 139-154.

Drugan, J. & Megone, C., (2011). Bringint Ethics into Translato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1), 183-211.

Goodwin, P. (2010). Ethical Proboems in Translation: Why We Might Need Steiner After All. *The Translator*, 16(1), 19-42.

<동영상 자료>

Andrew Chesterman interviewed by Anthony Pym
(<https://www.youtube.com/watch?v=jm-9IbNVTj8>), 검색일자 2018년 3월1일.

<기타 웹사이트>

미국번역사협회(ATA) 윤리강령

(https://www.atanet.org/governance/code_of_ethics.php)

국제번역가연맹 번역가 헌장 (www.fit-ift.org/translators-charter)

한국번역사협회 번역가 헌장 (<http://www.kstinc.or.kr/intro/cons.php>)

대사관 통번역사의 직무 현황

한국통역번역학회 2018 제 23차 봄 정기학술대회
홍설영 (한국외대)

연구 개요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 대상 설문조사

- 총 응답자 수: 30명
- 응답자의 통번역 대상 외국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7개 언어)
- 조사대상 대사관: 미국, 호주, 가나, 프랑스, 세네갈, 독일, 오스트리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일본,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17개국)

연구 개요

설문문항 구성 및 내용

1) 응답자 정보

연령, 성별, 근무기간, 직함, 고용형태

2) 고용 자격·절차 및 직무내용

선발자격요건, 통번역 교육 이수 유무 및 이수 기관, 채용정보 접한 경로, 평가시험 유무 및 내용, 담당 업무, 통번역의 비중, 언어방향, 통역 대상자 + 번역 용도, 역할인식

3) 직무환경 및 전망

직무 만족도, 통번역 수행의 어려움과 보람, 역할 기대, 보수, 향후 통번역 수요전망

분석 결과

- 응답자의 업무 내용- 통번역 업무만 하는 경우: 12명 (36.66 %), 추가적 업무가 있는 경우: 18명 (63.34 %)

[1] 통번역 업무만 하는 응답자 분석

1부: 응답자 정보 빈도표

- 30대와 40대가 주 응답자 연령임을 알 수 있다.
- 8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많으며,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중 한-영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2부: 고용 자격·절차 및 직무 내용

- 통번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통번역 대학원 졸업 여부’이다.
- 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접한 경우와 지인 추천의 경우가 대사관 채용의 주경로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 홈페이지’ 등이 있다.
- 채용 시 역량 평가 시험 중 ‘인터뷰’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그리고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분석 결과

-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25%에 지나지 않았다.
- 독일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응답자들이 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독일 외무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언어의 통번역 근무자 중 매년 국무부 제공 교육 중 업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으로 나타났다.
- 대사관 통번역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도 수용할 수 있겠다.

분석 결과

- 통역가, 번역가, 또는 통번역가로 근무하고 있으나, 그 외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나 약 40%의 사람은 통번역 업무만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41.25 %, 번역은 약 52.08 %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 통역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75%는 순차통역을 주로 하고 있으며, 외국어→한국어로의 통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사관 내에서 통역의 주된 사용자는 외교관, 부대사, 대사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예방, 면담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100 %로, 한국어→외국어로의 번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또는 인터뷰자료, 연설문을 주로 맡고 있으며 보도자료, 사설/오피니언, 보고서, 그리고 이메일이 그 뒤를 이었다. 번역한 자료는 상직자에게 보고,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외부 배포로 주로 이용된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 중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가 직함에 따른 업무가 주된 업무라 응답했다.
- 통번역을 주로 하는 근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번역 전문 기술 역량'이라 답했다. 뒤를 이은 것이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와 '중립성'이다.

분석 결과

3부: 직무 환경과 전망

- 응답자 중 대다수가 본인이 맡은 통번역 업무에 만족하는 편이라 답했다.
- 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 중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번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어려움'이다. 뒤를 이어서 '통번역에 대한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요청사항과 이에 따른 조율'과 '전문적인 통번역 기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 언급되었다.
- 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 중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번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어려움'이다. 뒤를 이어서 '통번역에 대한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요청사항과 이에 따른 조율'과 '전문적인 통번역 기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 언급되었다.

분석 결과

- 응답자 중 대다수가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약 81.82%로 나타났다.
-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에 관하여는,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수요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대다수로 통번역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1] 통번역 업무 외 추가적 업무가 있는 응답자 분석

1부: 응답자 정보 빈도표

- 20대와 30대가 주 응답자 연령임을 알 수 있다.
- 5년 이하 근속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며, 비서 겸 통/번역사가 가장 많았다.
- 응답자 중 스페인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기타로 '영-아, 영-불 번역'도 있었다.

분석 결과

2부: 고용 자격·절차 및 직무 내용

- 통번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언어구사 능력'이다. 응답자 중 다수가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했다고 응답했다.
-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도 약 33.33 %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접한 경우와 지인 추천의 경우가 대사관 채용의 주경로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 홈페이지', '외교부 추천' 등이 있다.
- 채용 시 역량 평가 시험 중 '인터뷰'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과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영어 타이핑, 한국어 구술 시험'이 있다.

분석 결과

-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0%로 나타났다.
- 대사관 통번역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도 수용할 수 있겠다.
- 통번역 업무 외 추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책 및 소속 부서 관련 업무 일반', '행정 및 사무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39.16 %, 번역은 약 40.27 %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 통역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100 %이다. 통역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97 %는 순차통역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통역은 2.22 %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역의 언어 방향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 대사관 내에서 통역의 주된 사용자는 외교관, 대사, 부대사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면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예방, 공식회담의 상황이 언급되었다.
-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100 %로, 한국어→외국어로의 번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또는 인터뷰자료, 보고서를 주로 맡고 있으며 기사, 연설문, 이메일, 보도자료, 그리고 사설/오피니언이 그 뒤를 이었다. 번역한 자료는 상직자에게 보고, 외부 배포,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로 주로 이용된다고 응답했다.

분석 결과

- 모든 응답자가 별도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통번역 업무보다 직함에 따른 업무가 더 주된 업무를 이룬다고 말했다.
- 별도의 직책을 가진 근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번역 전문 기술 역량’이라 답했다. 뒤를 이은 것이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와 ‘문화적 이해’이다. 통번역 업무만 집중해서 하는 그룹과 1순위와 2순위로 제시한 응답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 **3부: 직무 환경과 전망**
- 통번역 직무에 대한 만족도 관련, ‘보통이다’로 답한 응답자는 44.44 %이다. 한 명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적었다.
- 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 중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통번역과 여타 업무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과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번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어려움’이다. 뒤를 이어서 ‘전문적인 통번역 기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 ‘통번역에 대한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무리한 요청사항과 이에 따른 조율’이 언급되었다.

분석 결과

- 응답자 중 전체가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2000-35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약 61.12%로 나타났다.
- 통번역만을 담당하는 근무자들에 비해 연봉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과 관련, 현재 수준 유지를 전망하는 응답자가 약 83.33%로 많으며,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응답자도 11.11%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2언어 학습동기 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정은
(한국외대)

<목차>

- ▶ 제2언어 학습 동기
- ▶ Gardner & Lambert의 사회교육모형(socio-educational model)
- ▶ Dörnyei의 제 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motivational self-system)
- ▶ 대학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 동기
- ▶ 결론

<제2언어 학습 동기>

Brown(1994): 동기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인,
감정 또는 욕구

Gardner(1985): 언어 학습에서 동기란 학습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노력과
학습하는 언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 학습 동기는 자기 존중(self-esteem), 불안 등과 더불어 정의 요인 의 하나로서 학습자가 왜 외
국어를 배우는가와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 변
인.

<Gardner & Lambert의 사회교육모형>

주요 개념 3가지

⇒ 통합성(integrativeness)

⇒ 학습 환경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the learning situation)

⇒ 동기(motivation)

<Gardner & Lambert의 사회교육모형>

⇒ 통합적 지향(integrative orientation):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목표 언어의 문화적 공동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동기

⇒ 도구적 지향(instrumental orientation):

미래의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L2를 학습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동기.

<Gardner & Lambert의 사회교육모형>

- 첫째,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한 요인으로 기존의 적성, 지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attitude)와 동기도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다.
- 둘째, 외국어 학습자들의 사회적, 인지적(cognitive), 정의적인(affective)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외국어 학습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 셋째, 학습자들의 동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 고급 통계 분석법을 사용했다

< Dörnyei의 제 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 >

: 가능성 자아(possible selves)와 자기차이이론(self-discrepancy theory)

: 내적(intrinsic), 외적(extrinsic)동기,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혹은 목표 설정(goal-setting)등과 같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동기의 종류를 이해하려는 노력.

: 서로 다른 동기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학습 환경과 더불어, 시간적 측면에서 L2학습 동기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

< Dörnyei의 제 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 >

⇒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학습자 스스로가 설정한 미래의 긍정적 자아.

⇒ 의무적 제2언어 자아(ought to L2 self):
외부 요인에 의해 강요된 수동적 자아.

⇒ 제2언어 학습 경험(learning experience): 실제적인 학습 환경

<대학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 동기>

문제인식

-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지극히 적으며, L2언어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가 영어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
- 대학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규명이 미비한 문제가 파생적인 문제들을 야기.

대학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연구

준비작업:

- 구체적인 연구목적 설정
- 설문 문항 설정 및 설문조사
- 통계 방법 결정

<결론>

- ⇒ 학부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 동기 연구의 중요성 인식.
- ⇒ 학습동기는 무(無)동기, 탈동기의 문제와 직결.
- ⇒ 동기요인의 강화와 부정적 요인의 제거: 학습환경과 학습태도.

참고문헌

- Do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achusetts: House Publishers.

충북 대학교
김동미

뷰티(미용)문화 산업에 있어서 번역의 필요성 연구

문화산업의 정의

- 문화와 문화산업의 정의
- **한국**
- 1. 문화 정의
 - -국내: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 양식의 총체(總體). (금성, 그랜드 국어사전 1995)
- 2. 문화 & 문화 산업 담당기관
 -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 Tourism)
- 3. 문화적 요소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예술성, 대중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등이 있으며 범위가 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인식의 변화로 확대 될 수 있음.

문화산업의 정의

● 미국

- 1. 문화와 문화산업 정의
 - 미국-인류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는 미적 작품인 ‘Arts’ 의 생산과 계승,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 기술 일반과 대별되는 ‘미적 기술(Fine Arts)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로 ‘음악, 댄스, 건축, 시각 예술 및 문학 등’ 미국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예술과 문화’ 로 인식.
- 2. 문화 & 문화 산업 담당기관
 - -각 주 별로 자치기구 산하의 ‘문화예술 분과 (Division of Art and Culture)’ 형태로 운영
-

문화산업의 정의

● 프랑스 · 영국

- 1. 문화와 문화산업 정의
 - 프랑스- ‘예술의 고장’ 문화를 인간의 창조적 정신과 창작 활동의 산물로 인식, 창조적 창작 활동과 문화 소비의 대중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
 - 영국- ‘문화적 자산(Cultural Property)로 인식. 창조성과 자율성이라는 인식, 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일관.
-

문화산업의 정의

- **중국 · 일본**

- 1. 문화와 문화산업의 정의

- 중국- 인류가 창조하고 육성한 부호 및 구성물이 총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규칙, 의식, 언어, 사회생활방식’ 등이 포함. 또한,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의 범위로 인식. 문화부 ‘(文化部)’ 라는 중국정부의 관할 부서를 두고 문화 및 문화산업을 육성
- 일본- 창조적인 일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의 부산물과 이에 따른 창작물로 인식.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 에서 지원 육성.
-

문화 산업의 종류

구분	항목명
출판 산업	출판업
	인쇄업
	서적, 잡지 및 신문 유통업
음반산업	음반 제작 및 복제업
	음악 출판업 및 저작권 관리업
	음반 유통업
게임 산업	게임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
	게임 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통업

문화산업의 종류

영화 산업	영화 및 비디오 물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기록매체 복제업
	영화 및 비디오 물 배급 및 유통업
방송업	공중파 방송업
	유선 및 위성 방송업
공연산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공연관련 산업

문화산업의 종류

기타 문화산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
	공예품 및 한복 제조업
	공예품 및 한복 유통업
	뉴스 제공,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사업
	(예술 및 문화부분)교육서비스업

뷰티(미용) 산업의 정의

-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 :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헤어 미용, 피부미용, 네일 아트, 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그와 관련된 미용 기기, 용품 등 제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 그러나 성형, 패션, 의류, 스파 등도 광의의 뷰티 산업으로 인식은 되나 제도 개선 중이며 아직까지는 뷰티산업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09),2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뷰티(미용) 산업의 정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름다움, 감동, 매력 등을 추구하는 데 이용 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이라고 정의.
- 광의의 뷰티 산업은 미적 디자인, 감동, 세련됨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과 소미를 모두 포함: 성형이나 패션, 디자인, 헬스까지 뷰티산업의 영역으로 봄.
- 협의의 뷰티산업은 신체와 결부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 즉, 성형, 화장품, 이,이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두피관리, 가발, 스파 등으로 한정된다고 정의를 내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화장품 산업 분석”, (2010), 19

뷰티산업 서비스 현황(2008년)

구분	업소수	종사자수	지상규모
뷰티미용 산업계	약 118,789 개	약 354,608 명	약 9조 9 천억원
헤어 미용 1)	약 82,551 개	약 248,310 명	약 6조원
피부 미용 2)	약 17, 979 개	약 53,936 명	약 1조 7천 억원
네일 미용 3)	약 3,715 개	약 15,062명	약 3,700 억원

- 자료: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Beauty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수립 연구, 2009.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2008
- 1) 황순옥 외, 보건 산업 진흥원 2009 재인용
- 2) 황순옥 외, 보건 산업 진흥원 2009 재인용
- 3) 한국 네일협회 내부자료

뷰티(미용) 산업의 현황

번역이론 (다중 체계 이론)

- 다중체계 이론의 생성
- 1970년대 에벤-조하르(Even-Zohar)와 투리(Toury)
- : 다양한 문학과 장르를 망라하여 번역된 작품과 번역되지 않은 작품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것.

-문학의 다중체계 이론 개념-

헤르만스(Hermans 1985)가 ‘조작학파’ (Manipulation School)명칭 사용.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문학적 다중체계에 번역 이론을 도입.

:번역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적 요인이 역어권의 민족 문학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천언어(Source language) 보다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를, 번역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번역 문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

번역이론 (다중 체계 이론)

- 용하는 이유를 1)목표언어의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면과
- 2)번역 규범과 행동 및 정책이 기타 상호 시스
- 템에 영향을 받는 면에서 규명하고자 시도

뷰티(미용) 산업과 번역이론(다중 체계 이론)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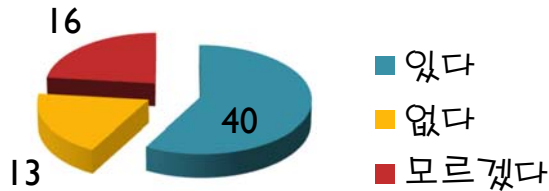
- ①-번역 규범과 행동 및 정책이 기타 상호 시스템에 영향 받
- 는다.
- 질문

뷰티(미용)문화산업, 즉 영어의 전문 용어 등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이들의 현상에는 어떠한 (한국의)시스템이 작용하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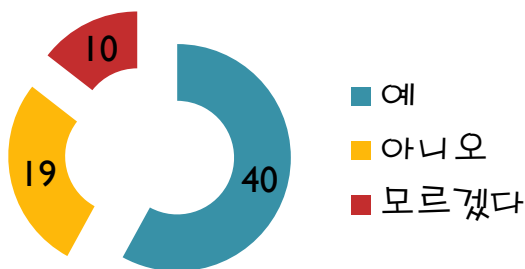


- 미용 분야의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 있다(40명, 58%)
- 없다(13명, 19%)
- 모르겠다(16명, 23%)

- 전체 조사자의 50%가 넘게 해외로 미용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통계·조사됨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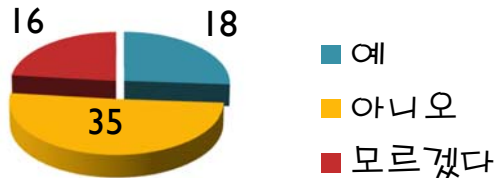


- 해외진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영어)라고 생각하나요?
- 예(40명, 58%)
- 아니오(19명, 28%)
- 모르겠다(10명, 14%)

- 전체 조사자(69명)중 40명이 넘게 즉, 58%가 해외 진출 시에 장애물이 언어라고 생각한다 고 조사됨.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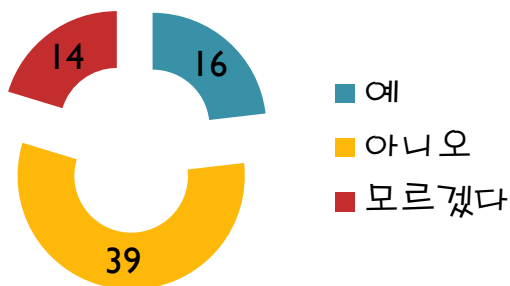
Table 3



- 언어(영어)때문에 미용 학습에 장애를 느낀 적이 있나요?
- 예 (18명, 26%)
- 아니오(35명 51%)
- 모르겠다(16명, 23%)
- 영어 때문에 미용 학습에 장애를 느낀 적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Table 4



미용 실력이 영어 실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하여

예(16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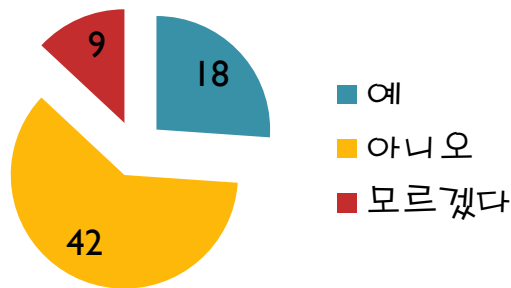
아니오(39명, 57%)

모르겠다(14명, 20%)

의 통계의 수치가 나왔다.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Table 5



영어 때문에 해외 진출을 포기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18명,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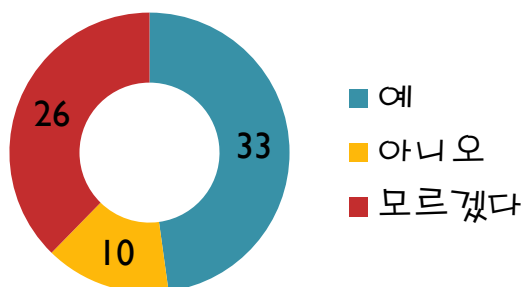
아니오(42명, 61%)

모르겠다(9명, 13%)

전체 수치의 반이 넘게 영어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영어 때문에 해외진출을 포기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Table 6



•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미용 분야에 종사하려면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 예(33명, 48%)

• 아니오(10명, 14%)

• 모르겠다(26명, 38%)

• 미용산업 종사자의 조사결과이다.

• 영어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미용 종사하는데 있어서 영어를 배제시키는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Ⅱ

작성 번호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 100	101 - 110	111 - 120	121 - 123
기 재 답 안 수	329/ 670 (49 %)	320/ 670 (48 %)	294/ 670 (44 %)	336/ 670 (50 %)	205/ 670 (30 %)	214/ 670 (32 %)	172/ 670 (26 %)	214/ 670 (32 %)	140/ 670 (21 %)	141/ 670 (21 %)	202/ 670 (30 %)	201/ 670 (30 %)	69/ 201 (34 %)
정 답 수	211/ 670 (38 %)	192/ 670 (29 %)	232/ 670 (35 %)	254/ 670 (38 %)	110/ 670 (16 %)	102/ 670 (15 %)	139/ 670 (21 %)	165/ 670 (25 %)	68/ 670 (10 %)	80/ 670 (12 %)	91/ 670 (14 %)	154/ 670 (23 %)	50/ 201 (25 %)
오 역 수	118/ 670 (18 %)	128/ 670 (19 %)	62/ 670 (9 %)	82/ 670 (12 %)	95/ 670 (14 %)	112/ 670 (17 %)	33/ 670 (5 %)	49/ 670 (7 %)	72/ 670 (11 %)	61/ 670 (9 %)	111/ 670 (17 %)	47/ 670 (7 %)	19/ 201 (9 %)

비고 : 기재 답안 수 평균: 전체의 34%, 정답 수 평균: 전체의 23 %
오역 수 평균 : 전체의 11 %.

분석 결과

뷰티(미용)문화 산업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실제 (예비+현장)헤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인식 · 조사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용 산업가 번역인식관계 Ⅱ 참고)

- 전체 응답의 약 1/3이 전문용어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 전체 응답의 약 1/5이 전문용어에 대한 정답을 하였다.
- 전체 응답의 약 1/10이 전문용어에 대한 오답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원천언어(영어)에 대한 정확한 목표언어(한국어)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오역의 비율이 1/10이 이상이 넘는 것은 현장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전문용어들일 수도 있다.

분석 결과

- 뷰티(미용) 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 을 비교 할 때,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58%이상이고, Table 2에서 보면, 해외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언어(영어)라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58% 이상이다.
그러나 미용학습 자체에 장애를 느낀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은 18%만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인식자체가 미용에 있어서 전문용어(영어)의 중요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미용 분야에 종사하려면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느냐의 질문에 전체 67 가운데 33명, 즉 48%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결론


- 뷰티(미용)산업 종사자(67명)의 원천언어(영어)정확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원천언어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 및 인식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 이것은 미용산업이 6조원 가까이 수입을 내는 것에 비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부정확한 의미의 전문용어 사용은 현실적으로 미용 산업 종사자의 자질 및 교육을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 또한 (예비 및 현)미용 산업종사자의 해외 진출에 대한 앞으로의 현상에 대하여 영어 및 한국어의 투자도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한국의 미용산업에 대한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하여 고려해 볼 가치도 있다.

참고문헌


- 김혜정.(2017). 미용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장벽과 진로소명 및 진로결정 차이분석.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혜진.(2012). 특성화 고등학교 헤어 미용 교과서의 전문
용어 사용 실태 분석. 성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지현.(2011).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 필요성 연
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2013). 뷰티산업종사자의 한미 FTA 인식 분석 연구.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명.(2006).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
한 연구. 청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2007). 헤어 미용 직업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 록


	원어명	전문용어
1	cosmetic (face)powder / power	
2	hair part/ part	
3	guide line	
4	decreasing graduation	
5	gauze	
6	gel	
7	golden point	
8	commercial make-up	
9	graduation form	
10	glaze	



11	natural make-up	
12	nape	
13	nail art	
14	net	
15	non stem roller curl	
16	down shaping	
17	dandruff scalp treatment	
18	dry scalp treatment	
19	rod out	
20	roller curl	




21	long stem roller curl	
22	loop	
23	reset	
24	liquid foundation	
25	rinse	
26	lip-gloss	
27	lipstick	
28	lip-cream	
29	marcel wave	
30	mascara	



31	mask	
32	make-up	
33	make-up base	
34	make-up artist	
35	cuticle	
36	stage make-up	
37	mousse	
38	melanin	
39	back diagonal part	
40	back center part	




41	back combing/ back brushing	
42	beauty make-up	
43	brush	
44	v-part	
45	blow dry	
46	blocking	
47	vinyl cap	
48	dandruff removal rinse	
49	dandruff removal shampoo	
50	beating	



51	side part	
52	acid shampoo	
53	set lotion	
54	setting	
55	section	
56	center parting	
57	scalp treatment	
58	square part	
59	stand up curl	
60	stem	




61	strand curl	
62	straight hair	
63	steamer/hair steamer	
64	stick	
65	stick foundation	
66	steam	
67	spiral/spiral wrap	
68	sliding cutting	
69	slicing	
70	slapping	



71	cystine	
72	bride make-up/ wedding make-up	
73	amino acid	
74	eyeline	
75	eyelash curler	
76	iron/ hair iron	
77	accessory	
78	hennin	
79	original set	
80	oily scalp treatment	




81	oil rinse	
82	winding	
83	one length form	
84	uniform layer	
85	Isadora style	
86	ear to ear part	
87	ear point	
88	increase layered form	
89	electronic setting machine	
90	intermediate rinse	




91	cowlick part	
92	conditioning rinse	
93	conditioning shampoo	
94	cupping	
95	keratin	
96	coordinator	
97	cold wave	
98	cream rinse	
99	towel	
100	test curl	



101	tension	
102	treatment	
103	foundation	
104	patch test	
105	permanent wave	
106	power puff	
107	processing time	
108	plain scalp treatment	
109	pin curl wave	
110	finger wave	



111	highlight color	
112	half stem roller curl	
113	henna	
114	hair dryer/ hand dryer	
115	hair line	
116	hair setting	
117	hair shaping	
118	hair spray	
119	hair coloring	
120	hair waving	



121	hair bleach	
122	hair cut	
123	hormone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의 전략 연구

계명대학교
이지민

정보성

- The extent to which a presentation is new or unexpected for the receivers (Beaugrande & Dressler)
- 1st-order informativity: function word. trivial
- 2nd-order informativity
- 3rd-order informativity: discontinuities, discrepancies



정보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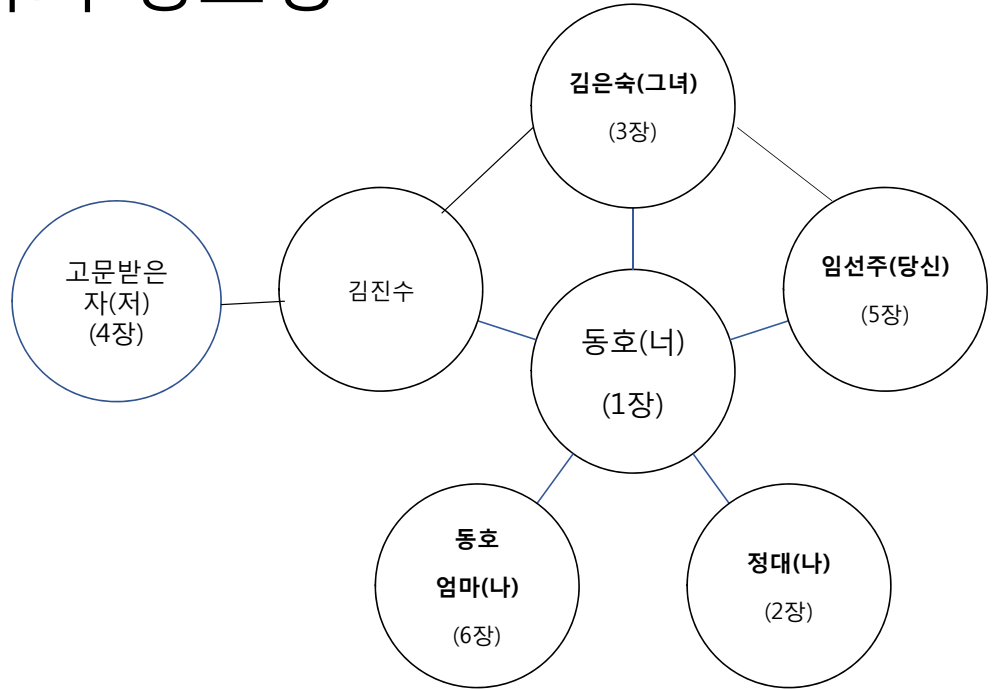
- Motivation search
 - backward downgrading
 - forward downgrading
 - outward downgrading

정보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 번역자

- Motivation search
 - backward downgrading
 - repetition of information
 - forward downgrading
 - changing the order of the information
 - outward downgrading
 - detailed explanation
 - domestication
- motivation search 자체
 - deletion

소년이 온다의 정보성

• 인물



소년이 온다의 정보성

• 배경

- 5.18 광주항쟁 (1980년 5월 18-27일. 광주에서 계엄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발단으로 광주 국민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국가의 군대에 의해 국민들이 죽음을 당함) 당시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이후의 삶

- 부마항쟁
- 전두환 통치

• 플롯

- 1장: 동호 1980. 5. 21-계엄군이 일시 퇴각하고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한 5월 21일 이후.
- 2장: 정대 1980. 5. 18-21 계엄군 공격
- 3장: 김은숙 1985. 출판사. 1980. 5. 26 도청을 빠져나온 것에 대한 후회
- 4장: 1990. 김진수의 10년간의 행적에 대한 증언
- 5장: 임선주 2002. 현재와 과거의 교차 편집
- 6장: 동호엄마 2010. 아들에 대한 회상

Forward Downgrading: 소재목 변경

- 주제 → 인물, 배경 명시
- 1장 어린 새 → The Boy, 1980
- 2장 검은 숨 → The Boy's Friend, 1980
- 3장 일곱 개의 뺨 → The Editor, 1985
- 4장 쇠와 피 → The Prisoner, 1990
- 5장 밤의 눈동자 → The Factory Girl, 2002
- 6장 꽃핀 쪽으로 → The Boy's Mother, 2010

Forward Downgrading: 인물의 이른 명시

- 3장 일곱 개의 뺨
그녀는 일곱대의 뺨을 맞았다. (p.65)
71페이지에서 김은숙임을 알 수 있음

→

3. The Editor, 1985

At four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Eun-sook received seven slaps to her right cheek. (p.65. 첫문장)

Backward Downgrading: 인물의 (반복) 명시

- 6장 꽃핀 쪽으로

전술된 에피소드를 통해(형, 작은 형, 건넌방 살던 남매..) 동호의 엄마임을 추측할 수 있음

- 동호야!라고 부르는 건 해당 장의 마지막 페이지

→

The Boy's Mother, 2010

- 제목에서 동호의 엄마임을 알 수 있도록 함

Outward Downgrading: 배경 상세 설명

- 1979년 가을 부마항쟁을 진압할때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 In autumn 1979, when the democratic uprising in the southern cities of Busan and Masan was being suppressed, President Park Chung-hee's chief bodyguard Cha Ji-cheol said to him:

- 중앙정보부가 구사대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력의 정점에 군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 You never forgot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trained and supported the strike-breakers, that at the peak of this pyramid of violence stood President Park Chung-hee himself, an army general who had seized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Outward Downgrading: 배경 상세 설명

- 당신은 긴급조치 9호의 의미를 이해했고, 대학 정문에서 스크럼을 짠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이해했다.

→ You understood the meaning of emergency measure no. 9, which severely penalised not only calls to repeal the Yushin constitution but practically any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of the slogan shouted by the scrum of students at the main entrance to the university.

-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 Jean Tae-il died for the sake of this law.

Outward Downgrading: domestication

-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

→ With Yoon making three the office would be empty,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e by the junction.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 I scooped some stir-fried anchovies out of a Tupperware container and onto a plate, then some beans boiled in soy sauce.

Motivation Search: 주변 인물 삭제

- 점심시간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박 양이 왔다. 여고 학생복 같은 검색 반코트에 유희화 차림이었다. 인쇄소 사장의 친척이라는 박양은 나이에 비해 넉살이 좋은데다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어서 누구나 좋아했다.
→ The publisher's niece, a lively, cheerful young woman who frequently ran errands for them, dropped by the office just before lunch.
- 윤 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
→ With Yoon making three the office would be empty,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e by the junction.

Motivation Search: 배경 삭제

- 그러다 너를 본 건 금남로에서였어.
→ That was when I saw you, Dong-ho.
- 중흥동 집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
→ When we sold the hanok and moved,

기타 정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문학적 비유

- 천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 뭉클뭉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
→ Riding my bike beside the river, racing along with the wind strong in my face, parting it before me like a ship's prow slicing through water.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

→ With that thick, heavy blood still creeping from my shadow-eyes, amid the dawn light being calved from the night slow as an iceberg, I found it impossible to move.

기타 정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나이의 일관성없는 표기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열아홉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 Eighteen years old and passing by on the bus, she'd screwed her eyes tight shut.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열일곱살이었다.

→ You were seventeen when you first heard it described that way.

- 층수의 일관성없는 표기

위태하게 이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어졌다.

→ You stood there clinging to the second-floor railing, trembling.

여자들은 이층에 모여 있어.

→ women were all supposed to go up to the first floor.

감사합니다

서법 및 화행의 관점에서 본 희곡번역:
차오위(曹禺) 「뇌우(雷雨)」의중한번역을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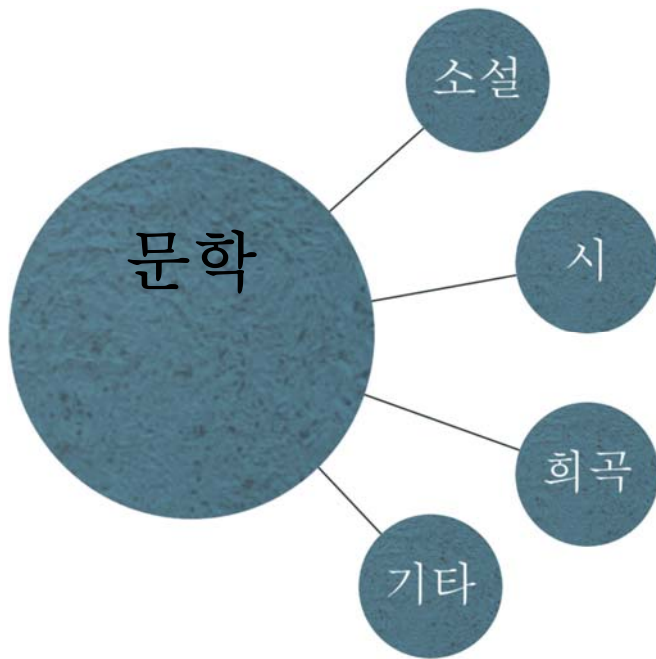


한국의외대 통번역대학원 김 지 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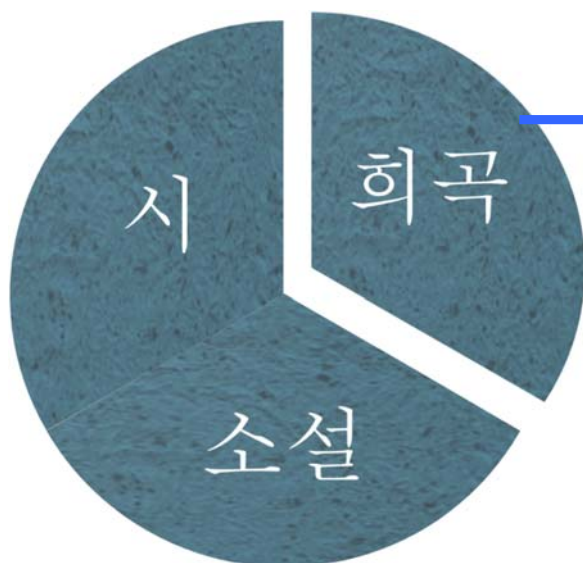
- 문학 번역과 희곡
- 서법과 화행
- 연구 질문
-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분석 결과
- 결론 및 기대 효과
- 과제 및 한계

문학 번역과 희곡



소설, 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문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

문학 번역과 희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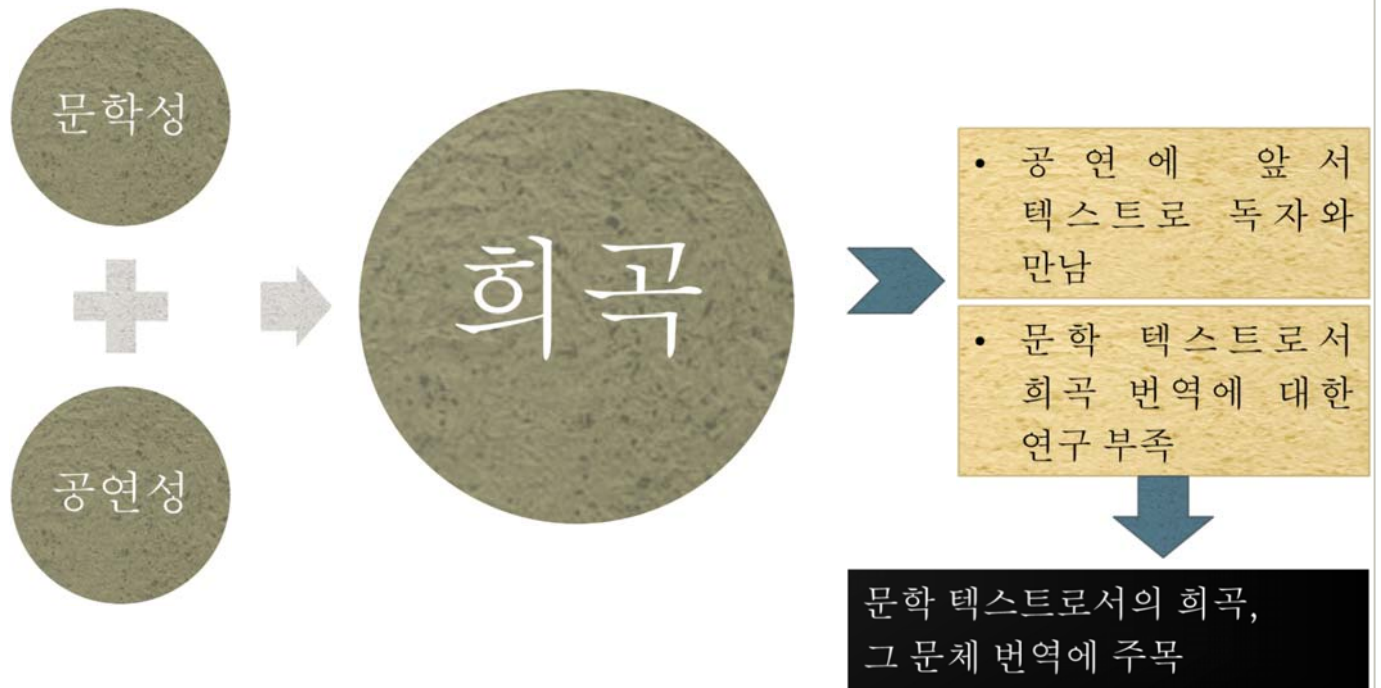
• “번역학에서 가장
방치된 변방의 영역”
(Bassnett, 1998,
1991/RenXiaofei, 2014)

• 시나 소설의 약 1/8
수준의 연구 논문수
(국내 학술지 게재 기준)

• 무대 공연과의
연관성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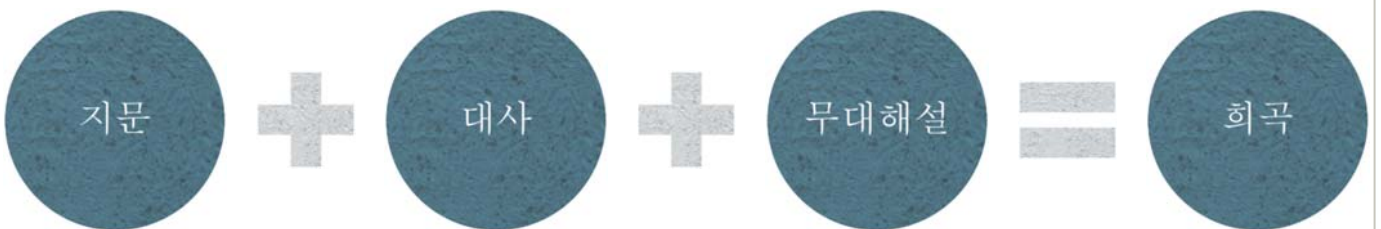
• 중국: 연구 주제는
다양하나 희곡 특성
맞춤은 소수, 영어
번역에 집중

문학 번역과 희곡



5

문학 번역과 희곡



* 작가의 직접적 해설 개입 불가
온전한 정신 또는 심리적 행동 불가
(구인환·구창환, 2003:402-406)

* 대사만이 그 언어의 전부
(테니슨, 1967:31)

6

연구 질문

- 중한 희곡 번역에서 작품 속 이(異)언어 간의 언어적 차이로 인한 경우 외에 등장인물 대사의 서법 혹은 화행의 변환이 발생하는가?
- 중한 희곡 번역에서 나타나는 서법 혹은 화행의 변환은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가?
- 희곡 번역 중 서법 및 화행의 변환이 작가의 의도, 즉 문체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7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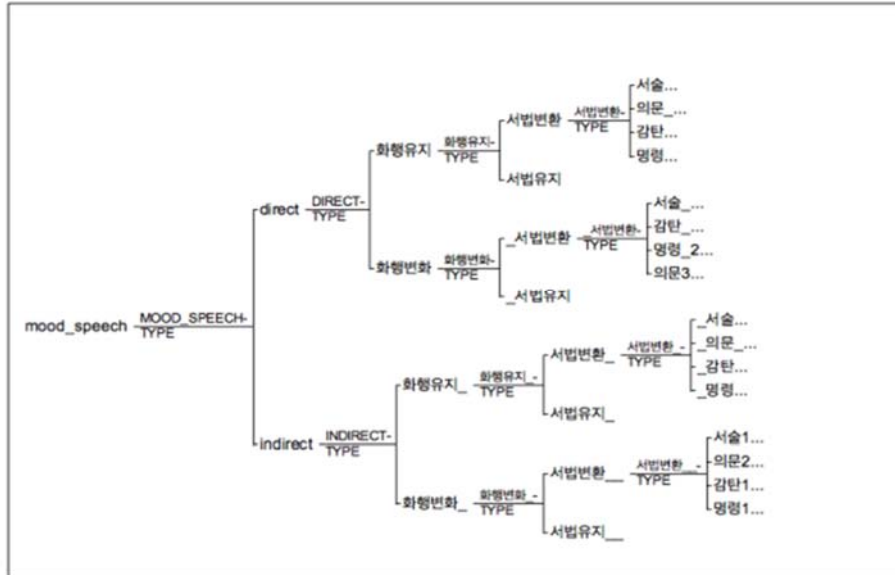
- 국내에 번역 출판된 중국 희곡 작품 중 번역서 발간 횟수가 가장 높은 작품 선정(한국출판연감 기준)
- 차오위(曹禺)의 「뇌우(雷雨)」 4종

8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분석 방법

- 동일한 원문(ST)에 대한 복수 번역(TT)를 비교 분석



연구 방법 및 분석 대상

• 분류 원칙

1. 이름, 호칭, 의성어 등의 단독 등장은 분석에서 제외.
2. ST의 문장이 분할된 경우, 해당 두 문장이 ST의 서법 혹은 화행과 동일하면 '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변환'으로 분류
3. 번역가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문장은 분석에서 제외
4. 서법 또는 화행의 변환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조 강화, 어조 약화, 효과 감소, 발화수반력 변화, 변화없음 등으로 분류
5. ST와 TT의 등장인물 대사 외에 지문, 무대 설명, 인물 소개 등은 본 연구 목적과 무관하므로 분석에서 제외

서법과 화행

- 서법(mood)

- 한국어 서법: 최현배(1999)를 참조하여 분류

서술	평서술
	감탄서술
	약속서술
의문	질문
	확인질문
	의문
명령	명령
	소원
	허락
청유	청유

서법과 화행

- 중국어 서법: 현대한어(黄伯荣、廖序东, 2011)를 중심으로 분류

유형	특징	자주 사용되는 어기조사	문장부호
서술(진술)문	사실, 현상, 사건 등 서술. 평탄하강 어조. 일반적으로 주어, 술어가 모두 구비되나 대화 속에서 주어 혹은 술어가 생략될 수 있음.	的, 了, 呢, 罢了, 嘛, 吧	。

서법과 화행

의문문	추측, 질의하는 문장. 긍정, 부정사 또는 의문사 사용. 'A还是B' 형태의 선택 의문문도 있음.	吗, 呢, 啊, 吧	?
명령(지시)문	요구나 권유/부탁, 지시 표현. 단독 동사 또는 동사 중첩이나 '동사-동사' 형태도 사용됨.	吧(요구의 경우 ,请, 劳驾, 麻烦 등이 사용되기도 함)	!
감탄문	강한 감정 표현. '多+형용사+啊', '太로~了', '好+형용사', '真+형용사' 등으로 표현되거나 감탄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그 외에 어기조사를 활용하거나 내용 자체가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啊, 呢, 呀, 哪, 啦, 哇	!

서법과 화행

- 화행(speech act)
 - Y.Huang(2007:140): 발화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화자에 의해서 언어의 특정 조각-단어, 구, 문장, 문장의 연쇄체-을 사용하는 것
 - 오스틴(Austin): 발화가 사회 제도와 관습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또는 행위 일부
 - 서얼(Searle, 1969):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5가지로 분류

서법과 화행

- 서어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 분류
 1. 단정 또는 단언(representatives)
 2. 지시(directives)
 3. 언약 또는 언질(commisives)
 4. 표현(expressives)
 5. 선언(declaration/declaratives)

15

분석 결과

- 차오위(曹禺)의 「뇌우(雷雨)」
 - 1933년 작(作).
 - 1935년 영화로도 제작. 세계 10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중국 작품 중 외국어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
 - 저우(周)씨와 루(魯)씨 네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일을 그림.
 - 총 4막, 등장인물 13명(하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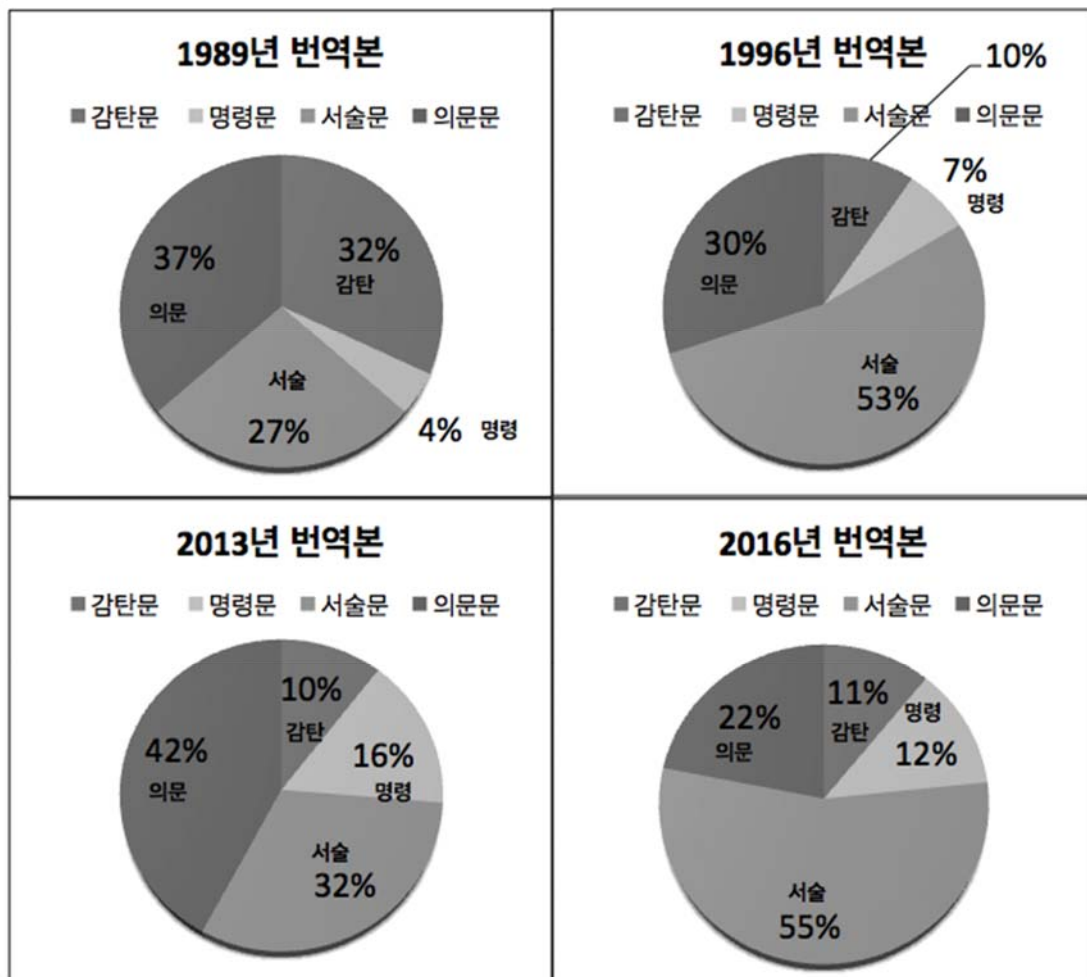
16

분석 결과

• 「뇌우(雷雨)」의 분석

- 1946년, 1989년, 1999년, 2013년, 2016년 총 5회 번역 출간.
이 중 1989년, 1999년, 2013년, 2016년 의 4개 번역본을 비교 분석
- 서막과 종막이 제외된 ST를 ST 1, 나머지는 ST 2로 표기하고, 4개 번역본은 출판년도순으로 각각 TT-a, TT-b, TT-c, TT-d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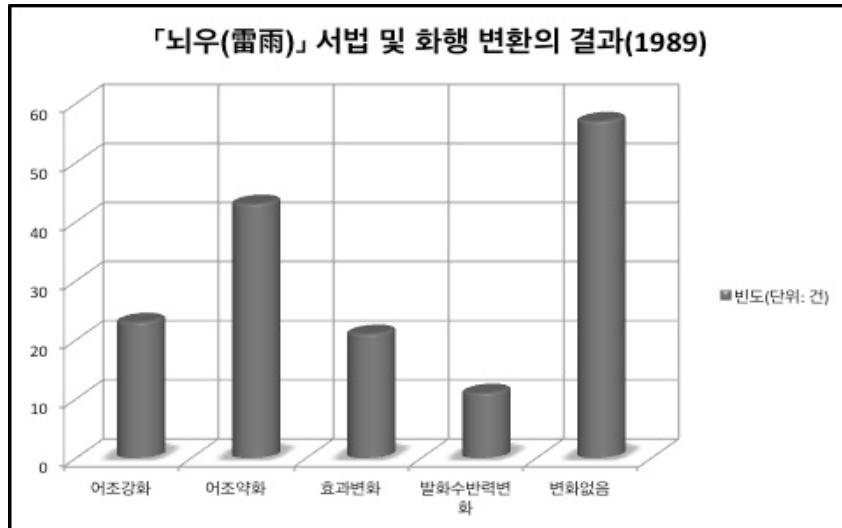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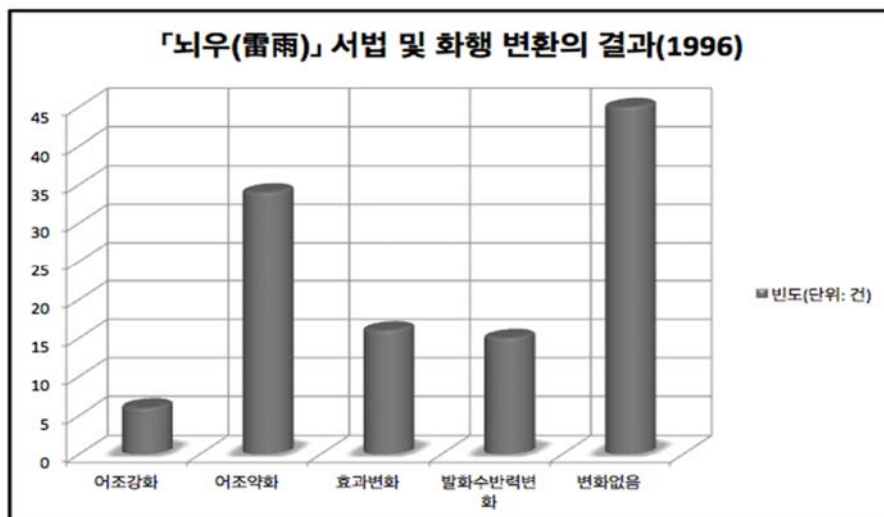
분석 결과

- 서법 및 화행 변환의 결과(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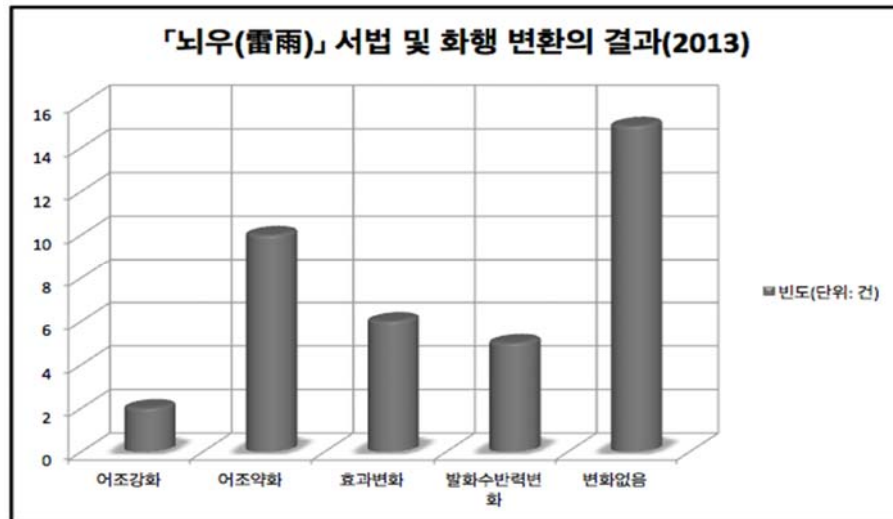
분석 결과

- 서법 및 화행 변환의 결과(T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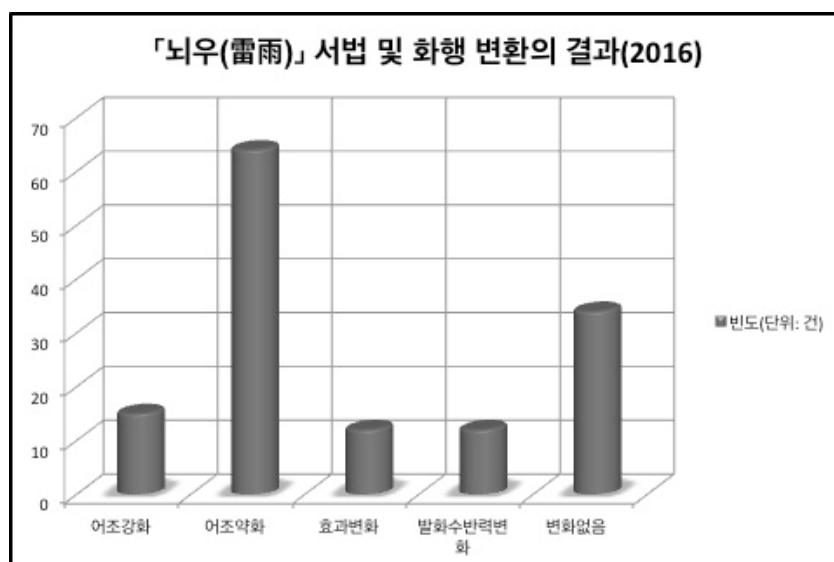
분석 결과

- 서법 및 화행 변환의 결과(TT-c)



분석 결과

- 서법 및 화행 변환의 결과(TT-d)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종합 1 (감탄문)

- 감탄문 → 질문, 평서술, 2개 문장으로의 분할/병합 변환
 - 감탄 → 질문(어조약화, 변화없음)
1. ST가 의문사를 활용한 감탄문인 경우
 2. 이중 부정 또는 정반의문을 질문으로 변환시킨 경우
 3. 번역사의 주관적 판단

23

분석 결과

- 감탄 → 평서술(어조약화)
1. 화행변환이 동반되지 않음
 2. 문장 부호 및 평서형 어미 사용으로 하강 어조
- 2개 문장으로 분할/병합(어조약화, 효과변화, 변화없음)

24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종합 2 (서술문)

1. 서술 → 확인질문(어조약화)

- 간접화행 변환 동반

2. 2개 문장으로의 분할(어조약화, 어조강화, 변화없음)

3. 서술 → 질문(어조약화, 발화수반력 변화, 변화없음)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종합 3(의문문)

1. 의문 → 평서술, 2개 문장으로의 분할/병합이 공통적으로 출현

2. 의문 → 평서술(효과변화, 발화수반력 변화, 변화없음)

- '변화없음'이 높은 빈도.

3. 2개 문장으로의 분할/병합(어조강화, 변화없음)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종합 4(명령문)

1. 낮은 비율로 출현
2. 명령→질문(어조약화)
 - 간접화행으로의 변환 동반
 - 직접 권유에서 제안으로

27

결론 및 기대효과


1. 「뇌우(雷雨)」 번역본에 나타난 서법 및 화행 변환
→ 4종의 번역서에서 평균 약 3.4%에서 서법 및 화행 변환
2. 「뇌우(雷雨)」 번역본에 나타난 서법 및 화행 변환의 특징
→ 감탄문: 질문, 평서술, 간접화행으로의 변환 多
서술문: 확인질문, 질문, 간접화행으로의 변환 多
의문문: 평서술, 직접화행으로의 변환 多
명령문: 질문으로의 변환 多

28

결론 및 기대효과

3. 번역 중 나타나는 서법 및 화행의 변환과 문체와의 관계?

→ 각 서법 및 화행의 변환으로 인한 영향을 ‘어조강화’, ‘어조약화’, ‘발화수반력 변화’, ‘효과변화’, ‘변화없음’의 5가지로 분류

 희곡 번역에서 서법 및 화행 변환은 문체 재현과 관련하여 번역사가 인지해야 할 특성

결론 및 기대효과

- 서법 및 화행을 중심으로 맥락적 차원에서 번역의 문체 재현 고찰
- 문학 장르 번역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희곡 번역 연구에 기여
- 공연 가능성 등에 집중된 희곡 연구에 ‘텍스트 자체’로서의 희곡 번역 연구 방향 제시
- 희곡 번역에 적합한 번역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각 제시
- 미래 발전 유망 분야 중 하나인 공연과 그에 따른 번역 수요 증가에 필요한 연구

과제 및 한계

- 제한적 작품 분석으로 일반화의 기준 제시의 어려움
- 서법 및 화행 변환으로 인한 결과의 보다 정밀하고 계량화된 분류 기준 필요

감사합니다.



번역 수업 설계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 구성요소 고찰

최은실(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지식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학습 형태도 점점 교사중심에서 학습자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중심의 학습과 IT 기기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컴퓨터 기반 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의 경우 학습 효과 및 학습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여러 대학에서 적용 및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변역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번역 수업에도 블렌디드 러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블렌디드 러닝으로 번역 수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고려사항 중 블렌디드 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 및 특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해 공통된 요소를 추출한 후 번역 수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유형화한 후, 번역 수업 설계에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와 구성요소

2.1 정의

블렌디드 러닝이란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blended’ 즉, 구성요소를 혼합함으로써 교수 및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렌디드 러닝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많은 연구에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정의를 선행 연구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Allan 2007; Mayadas and Picciano 2007; Mirabolghasemi and Iahad 2016; Picciano 2016; Stein and Graham 2014; Vaughan 외 2013). 하지만 각 연구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정의가 바로 학습 공간에 따라 구별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결합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한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학습 공간에 따른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

출처	설명
Stein and Graham (2014, 12)	a combination of onsite with online experiences
Allan (2007, 4)	a mixture of face-to-face and e-learning
Mirabolghasemi and Iahad (2016, 2)	Blended learning refers to linking e-learning activities to traditional classroom training.
Vaughan 외 (2013, 8)	an integration of face-to-face and online learning activities
Picciano (2016, 7)	The two core elements (online and face-to-face instruction) were deemed critical to blended learning.

또한 공간이라는 구성요소만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결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정의하기도 한다. Linder는 블렌디드 러닝을 구성하는 면대면 시간과 온라인 시간 간의 비율이라고 블렌디드 러닝을 정의내리고 있고(2017, 2), Mayadas와 Picciano는 2005년 개최된 ‘Slogan-C Workshop on Blended Learning’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대면 수업 시간의 일부가 온라인 활동으로 대체된 과정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정의했다(2007, 4).

학습 공간과 시간 외에도 블렌디드 러닝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Stein and Graham은 인터넷을 통해 비동기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블렌디드 러닝을 비동기적 상호작용과 동기적 상호작용의 조합이라고 말한다(2014, 19). Linder는 학습 목표를 위해 기술을 선택하는 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전략적 배치, 학습 기술 및 방법의 활용 정도 등을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요소로 꼽았다(2017, 2).

여러 가지 접근법을 이용해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blended’ 즉 학습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결합 혹은 혼합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대부분 학습 공간과 학습 시간을 언급했고, 상호작용이나 학습에 활용하는 매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블렌디드 러닝을 ‘학습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등의 결합하는 방법이나 전략 등을 이 기본적인 정의에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2 구성요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정의를 분석해서 학습 요소간의 결합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블렌디드 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Charles 외는 수업 양식(instructional modalities) 혹은 전달 매체(delivery media), 수업 방법(instructional methods)을 꼽았고(2014, 21), Mirabolghasemi and Iahad는 e-러닝 기술, 교수 방법(teaching method), 교수 기술(teaching technology)등을 꼽았다(2016, 3)¹⁾. 이와 유사하게 수업 방법의 혼합, 수업 전달 매체의 혼합,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의 혼합, 이 모든 구성요소의 혼합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의미를 분류한 경우도 있다(권희림 외, 2015, 335-2336). Sharpe외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016, 18).

1) 교수와 수업은 일반적으로 ‘teaching’을 ‘교수’로, ‘instruction’을 ‘수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손은주 외 2014, 55).

<표 2>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전달 방식	면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기술 융합	웹 기반 기술
시간	동기적 개입과 비동기적 개입
소재	실습 기반 학습 대 교실 기반 학습
역할	다학제적 집단 혹은 전문가 집단
교육학	여러 교육학적 접근법들
초점	서로 다른 목표를 인식
방향	강사 주도 학습 대 자율적(학습자 주도) 학습

‘전달 방식’의 경우에는 면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공간으로, ‘기술 융합’은 교수 혹은 학습 매체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Singh(2003)는 ‘차원(dimens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이러한 차원들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3>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

차원	구성요소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결합	학습 공간
자기진도 학습과 협동 학습	학습 형태
구조적 학습과 비구조적 학습	학습 유형
규격화된(off-the-shelf) 내용과 맞춤형(custom) 학습 내용	학습 내용
학습, 실습, 과제 수행 지원	학습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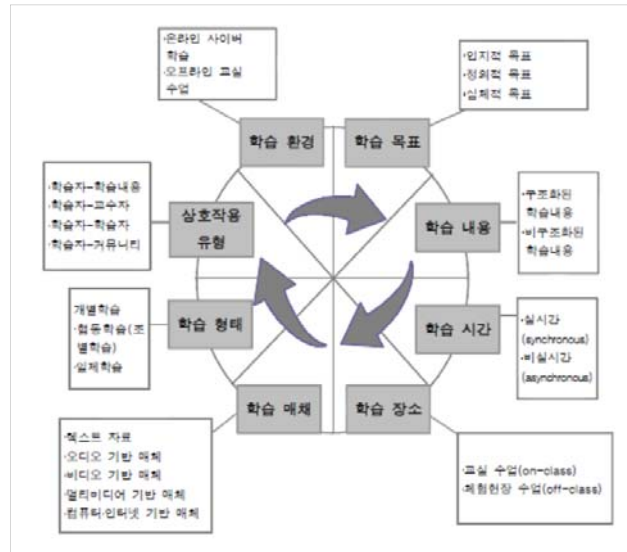
대학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설계를 시행하면서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김미영과 최완식 2006, 277). 학습의 주도권, 교수 매체, 학습 시간, 학습 공간, 교수 방법, 학습 형태, 학습 내용의 구조화 정도, 학습 장소, 상호작용 유형, 목표영역의 10가지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4>와 같다.

<표 4>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학습의 주도권	교수자 주도/학습자 주도/학습자 주도 교수자 촉진
교수 매체	10가지의 교수매체
학습 시간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공간	사이버환경/면대면 환경
교수 방법	강의식/문제 기반
학습 형태	자기주도 학습/협동 학습/일제 학습
학습내용의 구조와 정도	구조화된 학습내용/비구조화된 학습내용
학습 장소	교실 수업/체험현장 수업

상호작용 유형	학습자-교수자/학습자-학습자/학습자-학습 내용
목표영역	지적/정의적/심동적

이 외에도 대학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규 교육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의 영역을 <그림 1>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임정훈 외, 2003, 15-16).



<그림 1> K-12 학교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의 주요 영역과 요소들(임정훈 외 2003, 17)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를 다루고 있는 위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 분석

Sharpe(2016)	Singh(2003)	김미영 외(2006)	임정훈 외(2003)	종합
전달 방식	학습 공간	학습 공간	학습 환경	학습 공간
기술 융합		교수 매체	학습 매체	학습 매체
소재, 역할	학습 장소	학습 장소	학습 장소	학습 장소
방향	학습 형태	학습 형태, 학습의 주도권	학습 형태	학습 형태
교육학		교수 방법		교수 방법
초점		목표 영역	학습 목표	학습 목표
		학습 시간	학습 시간	학습 시간
		상호작용 유형	상호작용 유형	상호작용 유형
	학습 유형, 학습 내용	학습내용 구조화	학습 내용	학습 내용

블렌디드 러닝의 기본적인 정의대로 학습 공간은 4개의 연구 모두에서 블렌딩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학습 장소나 형태, 학습 내용 등도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특성 중 하나인 상호작용 유형도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3. 번역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3.1 번역 수업에 필요한 블렌디드 러닝 구성요소

앞서 살펴보았던 4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 중에서 번역 수업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우선 각 연구에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학습 공간과 학습 시간에 대한 영역을 하나의 차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블렌디드 러닝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렌딩 영역의 가장 기본은 공간과 시간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학습 시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기적 학습과 비동기적 학습 간의 결합 및 그 비율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이 외에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시간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 및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수자의 관점에서는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온라인 학습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기적 학습과 비동기적 학습의 비율을 정하기에 앞서 학습자를 위한 기대 학습 총 시간을 설정한 후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학습 형태와 교수 방법의 경우 분류 기준도 모호하고 그 종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기는 어렵다(이화여자대학교 2002, 35). 학습 형태는 보통 개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그룹 형태로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로 분류 가능하다. 교수 방법의 유형 역시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정하여 분류해 보면 강의형, 개인교수형, 실험형, 토론형, 자율학습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화여자대학교 2002, 35).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학습 형태와 교수 방법을 각각 배치하는 것보다 결합형 예를 들면, 강의형과 협력 학습을 결합한다든지 자기 진도 조절식 학습과 토론형을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합쳐 학습 전략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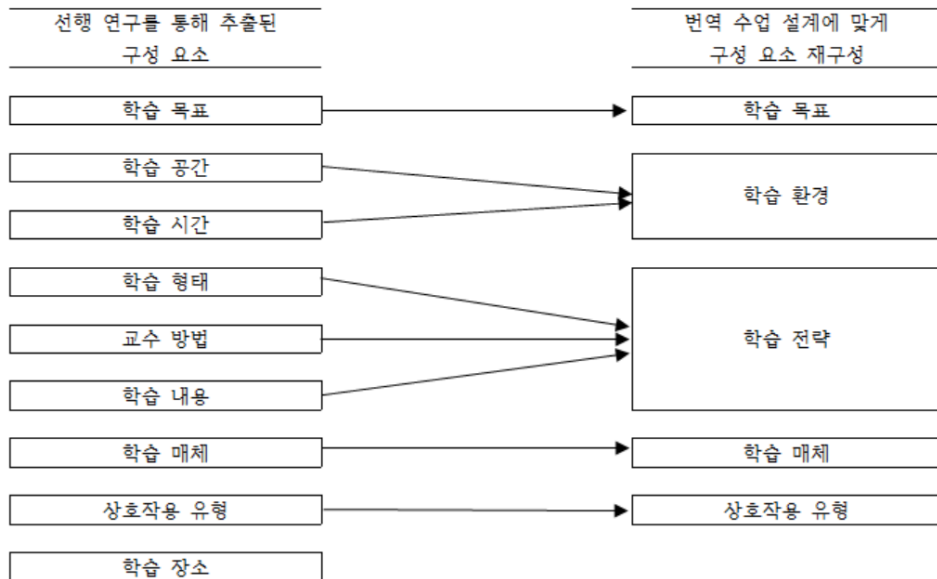
학습 매체는 교수 매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신재한 2017, 261). 또한 인쇄물, 그래픽 자료, 동영상과 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협의의 개념도 있지만 교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학습 환경, 시설,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도 존재한다(김미영 외 2006, 264). 다양한 교수 매체 유형 중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온라인 수업에 활용될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혹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조사에 초점을 둘까 한다. Blackboard, WebCT, Moodle, 각 대학의 LMS 시스템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다(Picciano 2009, 14).

학습 목표의 경우도 블렌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경우 추가할 수 있는 학습 목표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온라인 학습을 추가함으로써 혹은 온라인 학습이 오프라인 학습을 대체함으로써 달성이 용이한 목표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임정훈 외 2003, 14).

상호작용과 학습 내용 역시 블렌딩 영역이 될 수 있다. 학습이라는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어 학습자, 교수자, 강의 콘텐츠, 매체 등과의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의 경우 번역 수업에서는 대부분 비구조화된 자료를 활용해 수업이 진행되긴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 설계 시 구조화된 자료를 활용해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 역시 학습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학

습 장소의 경우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기 때문에 번역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구성 영역에서는 배제한다²⁾).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영역을 바탕으로 번역 수업 설계를 위해 재구성한 구성 영역은 <그림 2>와 같으며,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림 2>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 영역

3.2 구성요소별 하위영역 설정

블렌디드 러닝 번역 수업 설계를 위해 구성요소를 재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 요소 및 그에 따른 고려 사항들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해당 요소를 배치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수업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요소별로 하위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학습 목표

학습 목표의 영역은 인지적(cognitive) 영역, 정의적(affective) 영역, 신체적(physical) 영역으로 구분된다(손은주 외 2014, 170). 번역 수업 역시 위 3가지 영역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온라인 활동에서 혹은 오프라인 활동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업 설계 시 결정할 수 있다.

- 인지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온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 인지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오프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2) 일반적인 번역 수업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며, 현장 실습을 목적으로 번역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신지선 2010).

-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온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오프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 신체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온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 신체적 영역의 학습 목표 중 어떤 하위 요소가 오프라인 활동에서 달성하기 적합한가?

2) 학습 환경

학습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학습 공간과 학습 시간이다. 번역 수업을 위한 학습 공간의 경우 교실과 온라인 이외의 공간에서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중심으로 학습 시간을 배치하면 된다. 임정훈(2007)은 12주차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의 비율을 4주차와 8주차로 달리해서 강의를 진행한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학습 효과를 관찰했고, 김희경(2005)은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 중에 학습 시간에 대한 문항을 넣는 등 시간과 관련된 학습 환경 역시 블렌디드 러닝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총 기대 학습 시간 설정 후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배치하고 온라인 활동 중 동기적 활동과 비동기적 활동을 배분한다. 하위 요소에 따른 고려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된 교수/학습 활동을 교실 수업으로 설계할 것인가?
- 주된 교수/학습 활동을 온라인 수업으로 설계할 것인가?
-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활동을 교실 수업으로 설계할 것인가?
-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활동을 온라인 수업으로 설계할 것인가?
- 주된 교수/학습 활동의 총 소요 시간을 얼마로 설계할 것인가?
-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활동에 대한 총 소요 시간을 얼마로 설계할 것인가?
-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의 비율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온라인 활동 중 동기적 활동과 비동기적 활동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학습 전략

학습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학습 형태, 교수 방법, 학습 내용이다. 번역 수업에서 가능한 학습 형태로는 개별 학습 대 그룹별 협력 학습, 교수자 주도 학습 대 학습자 주도 학습이 있다. 교수 방법으로는 강의형, 토론형, 자율학습형 등 기존의 교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Davies(2004)가 제시한 활동(activity) 중심, 과업(task) 중심, 프로젝트(project) 중심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 내용은 수업이 다루고 있는 지식 영역의 주제를 의미하며(김미영 외 2006, 281), 구조적 학습 내용과 비구조적 학습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번역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학습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구조적 학습 내용으로 다룰 것이고 어떤 부분을 비구조적 학습 내용으로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활용 가능한 학습 형태 중 온라인에 가능한 종류는 무엇인가?
- 활용 가능한 학습 형태 중 오프라인에 가능한 종류는 무엇인가?
- 활용 가능한 교수 방법 중 온라인에 가능한 종류는 무엇인가?
- 활용 가능한 교수 방법 중 오프라인에 가능한 종류는 무엇인가?
- 학습 내용에 구조적 학습 내용이 포함되는가? 혹은 포함될 수 있는가?
- 학습 내용에 비구조적 학습 내용이 포함되는가? 혹은 포함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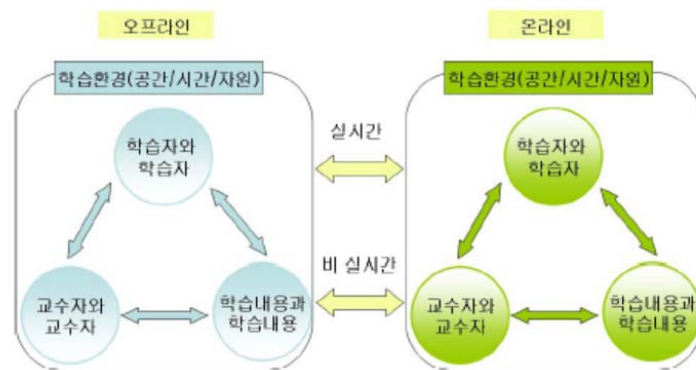
4) 학습 매체

여러 가지 유형의 교수/학습 매체가 존재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온라인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가상 학습 환경(Virtual Learning Environment: VLE)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oodle에서부터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LMS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로 선택한다.

- 해당 학습 매체에 대한 학습자들의 접근은 쉬운가?
- 해당 학습 매체를 통해 주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한가?
- 해당 학습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활동이 가능한가?
- 번역 수업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학습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번역 수업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번역 수업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5) 상호작용 유형

상호작용이란 최소 두 주체 혹은 두 행위가 필요한 상호 간의 사건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Wagner 1994, 7). 학습을 둘러싸고 있는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오프라인 학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온라인 학습 활동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간주될 만큼(Wagner 2006, 44)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동기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학습 목표에 맞추어 블렌딩할 수 있다. <그림 3>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블렌디드 러닝의 상호작용(이상수 2007, 238)

위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번역 수업을 설계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 구성요소

구성 요소	하위 요소	세부 사항
학습 목표	학습 목표	·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신체적 목표
학습 환경	학습 공간	· 교실 수업 vs. 온라인 수업
	학습 시간	· 총 기대 학습 시간 ·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비율 · 동기적 활동과 비동기적 활동 비율

학습 전략	학습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학습 · 그룹별 협력학습 · 학습자 주도 학습 · 교수자 주도 학습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형 · 토론형 · 자율학습형 · 활동 중심 · 과업 중심 · 프로젝트 중심
	학습 내용	· 구조적 학습 활동, 비구조적 학습 활동
학습 매체	VLE 프로그램	· LMS, CMS, 콘텐츠 제작 Tool 등
상호작용 유형	상호작용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학습자 · 학습자-교수자 · 학습자-학습 내용 · 동기적 상호작용 · 비동기적 상호작용

3.3 번역 수업에의 블렌디드 러닝 구성요소 적용 가능성

번역 수업을 위하여 추출한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실제 운영되었던 번역 수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구성요소들을 이용한 블렌디드 러닝 설계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최근의 번역 수업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2013~2017년 동안 발표된 논문 중 번역 수업 운영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논문 4편을 선정했다(신지선 2016; 원종화 2013; Li 2017; Al-Shehari 2017).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번역 수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마다 해당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제시했다.

신지선(2016)은 전문번역 수업을 운영하면서 3인 1조의 팀을 구성해(학습 형태)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상호작용 유형). 팀 구성원들은 미리 개별적으로 번역을 실시한 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최종 번역본을 완성했으며, 이 과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학생 토론 및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어졌다(교수 방법, 학습 내용, 학습 매체). 과업에 대한 소요 시간은 개인 번역에 2시간, 팀 번역에 1~2시간, 배경 조사 및 개인 작업에 2~3시간이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 시간은 단축되었다(학습 시간).

원종화(2013)는 번역입문 수업을 운영하면서 번역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미리 이론 자료를 학습한 후에 해당 이론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실시하였다(학습 내용). 번역 과제에 대한 발표 후 토론이 이루어지고 교수자의 피드백이 따라왔다(상호작용 유형, 학습 형태). 이 때 번역학 이론 용어나 개념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번역 이론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상호작용 유형). 토론 내용은 MP3로 녹음하여 활용했고 번역 후기나 교수 메모, 강의 일지도 연구에 활용되었다(학습 매체).

Li(2017)는 일반번역 수업을 운영하면서 번역 기술(technique) 습득에 초점을 두었다. 2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교수자가 강의식 수업 형태로 번역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자들은 짧은 문단을 번역한다(교수 방법, 학습 형태). 이 때 가능한 많은 버전으로 번역하고 각 버전에 적용된 번역 기술을 명시한다. 학기 중간이 되면 프로젝트 번역을 준비한 후에 학기 말이 되

면 조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학습 형태, 상호작용 유형). 성찰 일지(reflective journal)를 작성하게 했고 Wechat이라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 학습자 간 의견을 주고받았다(학습 매체, 상호작용 유형).

Al-Shehari(2017)도 일반번역 수업을 진행하면서 협력 학습에 초점을 두었다(학습 형태). 위키피디아에서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영문 텍스트를 선정하고 아랍어로 번역했다(학습 매체). 팀 구성원들은 번역, 수정, 편집, 감수 등의 역할을 분담했고, 번역물에 대한 피드백은 동료나 교수자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문 번역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상호작용 유형).

각 사례마다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출한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 구성요소가 다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업 운영에 있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구성요소가 두루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출된 구성요소들은 번역 수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지금까지 번역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 중 하나인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 및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 학습 환경, 학습 전략, 학습 매체, 상호작용 유형의 다섯 가지 요소를 선정했고, 각 요소들이 실제로 번역 수업에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요소를 선별해 내는 작업만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설계할 수 없다. 학습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될 수업에 최적화된 수업모형 개발, 학습자들의 수요 조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시범 운영 등 많은 기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블렌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 설계에 필요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희림, 문은경, 박인우. 2015. 국내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3): 333-359.
- 김미영, 최완식. 2006. 대학수업 적용을 위한 처방적 혼합학습 설계 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31(2): 257-306.
- 김희경. 2005. 원어민 교수자의 대학교양 영어회화 보조로서의 블렌디드 학습 사례 연구. 『새한영 어영문학』. 47(3): 159-182.
- 손은주, 추성경, 임희수. 201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경기도: 교육과학사.
- 신재한. 201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이모선북스.
- 신지선. 2010. 번역 현장 교육 과목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용 방안 제안. 『통역과 번역』. 12(2): 103-122.
- _____. 2016.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팀 번역’의 효과 고찰. 『통역과 번역』. 20(3): 27-49.
- 원종화. 2013. 번역 수업과 번역 이론의 연계를 위한 실행 연구: 통번역대학원 번역입문 수업을 대

- 상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291-314.
- 이상수. 2007. Blended learning의 의미와 상호작용 설계원리에 대한 고찰.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225-250.
- 이화여자대학교. 2002.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
- 임정훈. 2007. 대학 Blended Learning 환경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방식 및 성찰활동이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4): 49-76.
- 임정훈, 임병노, 최성희. 2003. 교실수업-사이버학습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교수학습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 Allan, B. 2007. *Blended Learning: Tools for Teaching and Training*. London: Facet Publishing.
- Al-Shehari, K. 2017. Collaborative Learning: Trainee Translators Tasked to Translate Wikipedia Entries from English into Arabic.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4), 357-372.
- Davies, M. G. 2004. *Multiple Voice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raham, C. R., Henrie, C. R. and Gibbons, A. S. 2014. “Developing Models and Theory for Blended learning Research” In *Blended Learning: Research Perspectives*, edited by A. G. Picciano, C. D. Dziuban and C. R. Graham, 13-33. New York: Routledge.
- Li, L. 2017. Training Undergraduate Translators: a Consciousness-raising Approach.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4), 245-258.
- Linder, K. E. 2017. *The Blended Course Design Workbook: A Practical Guide*. Virginia: Stylus Publishing.
- Mayadas, A. F., Picciano, A. G. 2007. Blended Learning and Localness: the Means and the End.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1(1), 3-7.
- Mirabolghasemi, M. and Iahad N. A. 2016. “Evaluating Learning Experience through Educational Social Network Support in Blended Learning” In *Evaluating Learning Experience through Educational Social Network Support in Blended Learning*, edited by D. Parsons, 1-16. Hershey: IGI Global.
- Picciano, A. G. 2009. Blending with Purpose: The Multimodal Model.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3(1), 7-18.
- _____. 2016. “Research in Online and Blended Learning: New Challenges, New Opportunities” In *Conducting Research Online and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New Pedagogical Frontiers*, edited by C. D. Dziuban, A. G. Picciano, D. R. Graham, and P. D. Mosk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harpe, R., Benfield, G., Roberts, G., Francis, R. 2006.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of Blended e-learning: A Review of UK Literature and Practice*. UK: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 Singh, H. 2003. Building Effective Blended Learning Programs. *Educational Technology* 43(6), 51-54.
- Stein, J. and Graham, C. R. 2014. *Essentials for Blended Learning*. New York: Routledge.
- Vaughan, N. D., Cleveland-Innes, M., Garrison, D. R. 2013. *Teaching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Edmonton: AU Press.

- Wagner, E. D. 1994. In Support of a Functional Definition of Intera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8(2), 6-26.
- _____. 2006. "On Designing Interaction Experienc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Blended Learning" In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s* edited by C. J. Bonk and C. R. Graham, 41-55. San Francisco: Pfeiffer Publishing.

채식주의자 기계번역 분석

-베르만의 왜곡현상을 기반으로
기계번역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인간번역과의 비교

한국외대
영어번역과
이준호

시작점

- 기계 번역의 성장
- 기계번역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 문학이나 마케팅도 가능할 것인가?

연구의 목적

- 기계번역의 문학 적용 가능성 여부
- 기계번역 개선사항 고찰
- 기계번역 오역 중심의 연구가 아닌
문학 비평의 이론을 활용한 접근

=>베르만의 비평이론을 이용하여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비교

왜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비교인가?

기계번역 엔진의 평가 방식

Back-translation, WER, BLEU 방식 등 (김유섭, 2018)

실질적 표준 방식 BLEU

-N-gram 을 사용한, 인간번역 모범답안과의 유사도 평가

기계번역 발전 과정은 인간번역 결과의 모사

(한 개 이상의 인간번역 선택이 일반적)

텍스트의 선정

한강 원작 『채식주의자』, 데보라 스미스 번역본 + 자넷 흥 번역본

엔진의 선정

구글번역 그리고 네이버 파파고 (비용 및 GUI 고려)

기존의 연구 (국내)

다양한 연구존재, 베르만의 분석틀 사용 사례를 찾지 못함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 이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이지민(2016)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규(2017)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김영신(2016)

•독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논의 :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마승혜(2017)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김대중(2016)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김가희(2016)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신혜정(2017)

기존의 연구 (국내)

기계번역의 문학 적용 가능성은 낮다. 사례 분석 연구를 찾지 못함

- 최윤영(1996)은 다의성 문제, 원래 문장이 지니는 불확실성 문제, 더 나아가 문체 및 예술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기계번역의 문학번역 적용은 어렵다 주장한 바 있다.
- 이상빈(2016)은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문학과 같이 창의적 글 쓰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기계번역이 제한적이거나 한동안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마승혜(2017)는 문학번역 능력과 기계화되기 어려운 인간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문학번역이 쉽게 기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기존의 연구 (해외)

기계번역의 문학 적용 가능성이 일부 있다. 사례 분석 존재 (PBSMT)

- 허친스(Hutchins, 2000) 문학의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기는 불가능
- 보이트와 주라프스키(Voigt & Jurafsky, 2012) 스타일의 문제와 문장 단위 이상의 텍스트적인 문제를 기계번역이 해결하기 어렵다 지적 / 문학작품의 결속성(cohesion)을 재현하는데 있어 인간대비 70%정도의 능력이 있음
- 베사시어와 슈바르츠(Besacier & Schwartz, 2015) 문학번역의 포스트에디팅을 진행한 이후, 그 결과물로 번역엔진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포스트에디팅을 진행할 경우 생산성 증가의 장점 주장
- 토랄과 웨이(Toral & Way, 2015) 문학번역의 목적은 읽기경험(reading experience)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번역이 문학번역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 프랑스어의 영어 및 이탈리아어 번역에서 일부 문장은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이 동일함
- 토랄과 웨이(2018) 영어와 카탈루냐어에 대해 3백4십만 토큰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 문학번역에 특화된 NMT모델을 학습시킴. PBSMT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BLEU 스코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인간번역가 평가에 따르면 약 30%의 문장이 인간번역과 동일한 수준

베르만의 관점

•번역 읽기 및 다시 읽기, 원작 읽기, 번역자 연구, 번역 분석 등으로 생산적 비평을 지향하고 있다.

- 기계번역은 창조적 글쓰기가 아님.
- 기계번역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 번역지평, 번역가, 번역프로젝트가 명확한가?

=> 번역행위를 하나의 체험으로 보는(이향, 2008) 베르만의 관점에서는 번역이 아닐 수도 있다.

•스타일적인 요소는 아니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번역을 할 수 있으며 문학번역가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

⇒베르만의 부정적 계기로서의 번역분석론

1. 합리화
 2. 명확화
 3. 이완화
 4. 고품격화
 5. 질적 빈곤화
 6. 양적 빈곤화
 7. 균질화
 8. 리듬의 파괴
 9. 기저 텍스트망의 파괴
 10. 텍스트의 체계 파괴
 11. 토착 언어망의 파괴 또는 이국화
 12. 언어 고유의 성구 및 관용구의 파괴
 13. 언어의 중첩 구조 삭제.
- (이영훈, 2015의 번역)

분석

•자넷 홍의 393 문장 기준

•인간번역 분석 선행 (한국외대 영어번역과*)

•4개의 번역 병렬 배치

•정량적 분석/ 필요한 경우 한국어와 비교

•가장 자주 언급된 현상

-양적 질적 빈곤화, 합리화, 고품격화, 이완화와 리듬의 파괴

•사용도구

앤티콩크, 워드스미스, MS 워드 및 엑셀

원문
데보라 스미스
자넷 홍
구글
파파고

THE	THE	THE	THE
I	I	I	I
TO	WAS	A	A
OF	A	WAS	AND
AND	MY	AND	OF
MY	AND	NOT	WAS
A	TO	TO	TO
HER	SHE	IN	IN
IN	HER	MY	MY
WAS	OF	OF	IT
THAT	IN	IT	HER
SHE	THAT	WIFE	SHE
IT	IT	THAT	WIFE
T	ON	HER	WITH
YOU	YOU	SHE	YOU
AS	WIFE	WITH	THAT
FOR	AS	DID	LIKE
WIFE	WITH	YOU	AT
WITH	AT	HAD	FOR
HAD	BUT	AS	ON
ON	FOR	IS	OUT
THERE	HAD	HAVE	BUT
ME	ME	ON	DIDN'T
UP	IF	LIKE	THERE
D	THERE	AT	UP
SO	WERE	FACE	WHEN
OUT	WHEN	FOR	AS
BUT	MEAT	BUT	FACE
WHAT	OUT	MEAT	IS
S	FROM	WHEN	MEAT
ALL	UP	WHAT	NOT
HAVE	DIDN'T	COULD	HAD
AT	LIKE	THERE	HIS
BE	NO	IF	ME
MEAT	THIS	OUT	WERE
THIS	WHO	SO	NO
BEEN	ABOUT	WERE	IF
WERE	BE	WHO	WHAT
FROM	JUST	ARE	ARE
NO	SO	HIS	WHO
EVEN	BEEN	ME	BEC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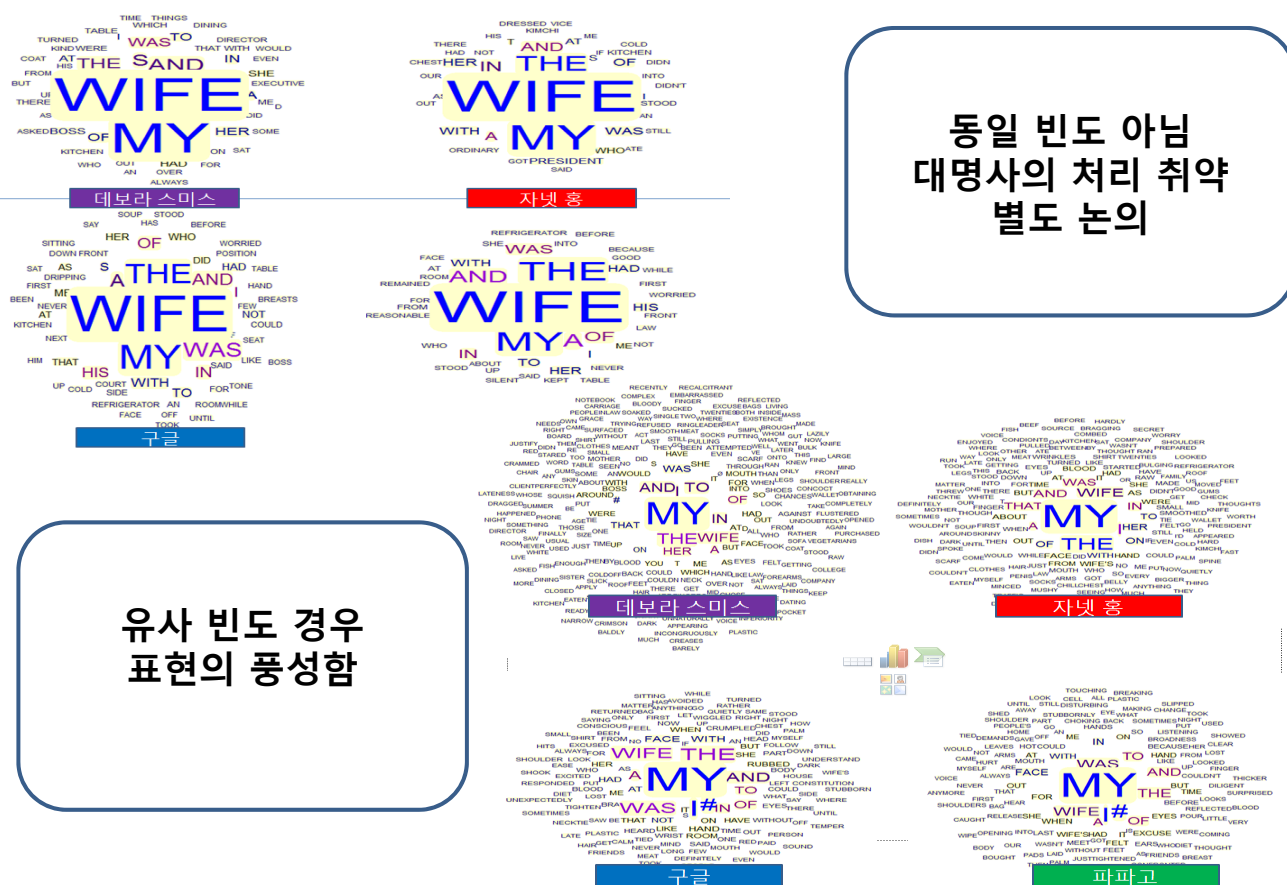
양적 질적 빈곤화 / 어휘 다양성

- 양적 빈곤화란 원문의 기표를 잘 표현하지 못한 나머지 어휘상의 풍부함이 감소되는 현상이며 질적 빈곤화란 은유나 음악적 요소가 잘 보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이영훈, 2015)
- NMT의 누락 현상 (김준석, 2017 및 가스티요 외(Casthilo et al.), 2017)

	TTR	STTR	의미어 기준
데보라 스미스	27.29	45.68	56.07
자넷 홍	27.28	43.90	54.00
구글	25.18	41.04	51.04
파파고	27.85	43.47	53.0

- 인간 번역 어휘 다양성 우세
-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해석에 주의 필요
- 기능어 제외, 의미어 기준 어휘 다양성 평가

양적 질적 빈곤화- 연어 분석 (양적)



대명사의 사용 (관계 설정)* 참조

- 대명사의 사용은 어쩔 수 없는 형식의 파괴로 볼 수 있음
-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주어를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번역 역량으로 볼 수 있음

원문에 "우리 5회" 등장 "그녀 71회"

	She	Her	We	Our	You
데보라 스미스	80	115	4	21	43
자넷 홍	113	92	10	21	45
구글번역	57	50	2	9	45
파파고	61	57	3	15	38

For a short while, he flashed the cold, which was buried in the court, and his wife sat in a seat next to him and ran a seat belt. Flooping the cheesecloth in a while, she sat next to her, sitting next to her, wearing a seat belt and fastening her seat belt.

대명사 사용의 잦은 실수.

양적 질적 빈곤화- 핵심 단어의 등장 빈도 및 어역 비교

Concordance Hits 20		Concordance Hits 13	
Hit	KWIC	Hit	KWIC
1	bamboo stick strung with great blood-red gashes of meat, blood still	1	ong bar. In some lumps, the red blood that had not dried yet wa
2	great blood-red gashes of meat, blood still dripping down." "Try to pu	2	clothes I wore were all wet with blood. I do not know how I got
3	o end to the meat, and no exit." "Blood in my mouth, blood-soaked clc	3	ugh But I was scared. I still had blood on my clothes. Nobody c
4	id no exit." "Blood in my mouth, blood-soaked clothes sucked onto my	4	ing behind the trees. There was blood in my hand. There was bl
5	he fear. My clothes still wet with blood." "Hide, hide behind the trees. C	5	as blood in my hand. There was blood in my mouth. In the barn,
6	of my mouth, slick with crimson blood." Chewing on something that	6	ums and palate and rubbed red blood. On the bottom of the bar
7	the face reflected in the pool of blood and all the rest of it, and once	7	sticks. There was still a thin red blood coming down in some bl
8	ld into my finger. A drop of red blood already blossoming out of the	8	e clothes I wore were soaked in blood. I don't know how I got o
9	nd on my forehead. The pool of blood in the barn...I first saw the face	9	ut I was scared. There was still blood on my clothes. Nobody s
10	d her serene face that made my blood run cold. Two times, she had s	10	ched behind a tree. There was blood in my hand. There was bl
11	nging from long wooden racks. Blood that hadn't dried was still dripp	11	s blood in my hand. There was blood in my mouth. In the barn,
12	ther, but I couldn't see the end. Blood soaked my white clothes. I don	12	y gums and soft palate with red blood. My eyes glimmered in th
13	y clothes were still stained with blood. No one saw me crouch behin	13	the index finger, one of the red blood cells was rapidly bloomi
14	rouch behind a tree. There was blood on my hands. There was blood		
15	blood on my hands. There was blood on my mouth. In that barn, I h		
16	round. I had eaten it, smearing blood from the mushy raw meat on n		
17	tered, reflected in the puddle of blood on the barn floor. It was so rea		

피(blood)는 핵심 단어,
다른 명사로 대체하기 어려움
인간번역: 빈도에서 우세, 수식어 및 문장 구조 비교

양적 질적 빈곤화- 핵심 단어의 연어 분석 및 어역 비교

Concordance Concordance Plot File View Clusters/N-Grams Collocates Results 1

Total No. of Collocate Types: 233 Total No. of Collocates: 480 Total No. of Collocate Types: 191 Total No. of Collocate Tokens: 480

Rank	Freq	Freq(L)	Freq(R)	Stat	Collocate	Rank	Freq	Freq(L)	Freq(R)	Stat	Collocate
1	2	1	1	8.75694	smells	1	3	2	1	9.34190	smells
2	1	0	1	7.75694	weight	2	3	1	2	9.34190	anyway
3	1	1	0	7.75694	texture	3	2	2	0	8.75694	texture
4	2	2	0	7.75694	suppose	4	2	0	2	8.75694	teeth
5	1	1	0	7.75694	suggested	5	2	0	2	8.75694	often
6	1	0	1	7.75694	stupid	6	2	0	2	8.75694	nodded
7	1	1	0	7.75694	snacking	7	2	1	1	8.75694	lose
8	2	1	1	7.75694	slicing	8	2	0	2	8.75694	doctor
9	1	1	0	7.75694	skeletons	9	1	0	1	7.75694	weight
10	1	1	0	7.75694	sizzling	10	1	1	0	7.75694	presence
11	2	0	2	7.75694	singing	11	1	0	1	7.75694	packs
12	1	0	1	7.75694	seemingly	12	1	0	1	7.75694	odd
13	1	0	1	7.75694	repulsive	13	1	0	1	7.75694	jump
14	1	1	0	7.75694	recalling	14	1	1	0	7.75694	japchae
15	2	0	2	7.75694		15	2	0	2	7.75694	instinct
16	2	2	0	7.75694		16	2	2	0	7.75694	hunting
17	1	0	1	7.75694		17	1	0	1	7.75694	haven
18	1	0	1	7.75694		18	1	0	1	7.75694	exit

Search Term Words Case Regex Windk From Min. 1

meat Advanced Start Stop Sort

고기(meat)는 갈등의 핵심 단어,
다른 명사로 대체하기 어려움
동일 통계 조건, 빈도 비교, 단어 수준 비교

합리화: 원문의 통사 구조나 구두점에 손을 대거나 변형시킴으로써 원문에 담긴 구체적 의미를 파괴하고 추상화하는 경향

문장 부호 !와 ? 의 사용	
원문	4-35
데보라 스미스	6-54
자넷 흥	2-46
구글 번역	6-51
파파고	7-56

축약형 't와 'd 의 'm사용	
데보라 스미스	60회 35회 8회
자넷 흥	71회 26회 6회
구글 번역	0회 0회 3회
파파고	62회 1회 10회

기계번역*

맥락의 고려?
S2S 한계?

따옴표 사용 문장 빈도 원문 86회	
데보라 스미스	78회
자넷 흥	85회
구글 번역	45회
파파고	50회

기계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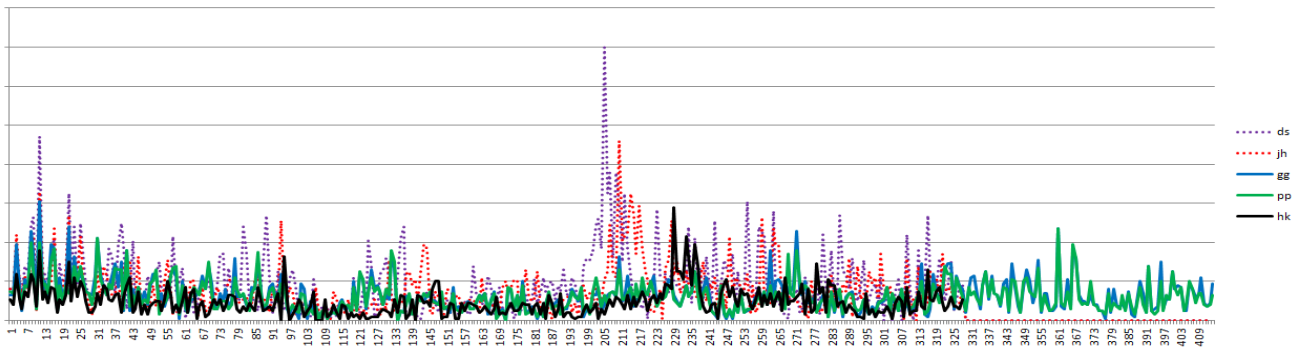
화법 고려?
별도의 보완 장치?

이완화 및 리듬의 파괴

명확화의 목적으로 원문의 메시지를 늘이는 경향-> 리듬에 타격

	문장 수	문장 당 단어 평균	전체 토큰 수
원문	386	8.11	3130.46
데보라 스미스	336 ★	18.21	6118.56
자넷 흥	393	12.72	4998.96
구글	436 ★	12.21	5323.56
파파고	455 ★	10.95	4982.25

1:1 비교 주의!
이완화는 DS
 다른 양상의 리듬 파괴
 :문장의 호흡
 :자동 분할
 *기계번역 개선사항



문장 길이 비교

고품격화

단순히 아름답게 텍스트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

1회 사용 어휘	
데보라 스미스	1041 ★
자넷 흥	802
구글 번역	783
파파고	794

N-letter	13	14	15	16
데보라 스미스 ★	17	4	2	2
자넷 흥	9	0	1	0
구글	11	2	1	0
파파고	7	1	0	1

원문	거닝포그인덱스	플래쉬리딩인덱스
데보라 스미스 ★	9.69	68.37
자넷 흥	7.26	76.12
구글	6.84	80.78
파파고	6.64	79.36

인간 번역이 더 창의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
 인간 번역이 더 읽기 어렵다?
 결정론적 유추는 어려움!
 기계가 인간을 추적 중임을 고려!
 기계번역이 고품격화를 피했다?
 병렬 비교 필요

N-gram 분석* 참조

Rank	Freq	Range	N-gram
1	10	1	i couldn t
2	6	1	i had a
3	6	1	my wife was
4	5	1	had a dream
5	5	1	i had a dream
6	5	1	my wife s
7	5	1	there was no
8	4	1	boss s wife
9	4	1	in front of
10	4	1	in order to
11	4	1	in the dark
12	4	1	it wouldn t
13	4	1	my boss s

Rank	Freq	Range	N-gram
1	9	1	i didn t
2	9	1	she didn t
3	8	1	i couldn t
4	7	1	my wife s
5	6	1	president s wife
6	5	1	had a dream
7	5	1	i had a
8	5	1	she wasn t
9	5	1	the first time
10	4	1	about my wife
11	4	1	i had a dream
12	4	1	in the kitchen
13	4	1	in the morning

Rank	Freq	Range	N-gram
1	20	1	i did not
2	10	1	i could not
3	9	1	she did not
4	8	1	i had a
5	7	1	my wife was
6	6	1	had a dream
7	6	1	i had a dream
8	6	1	it was a
9	5	1	did not have
10	5	1	i can not
11	5	1	in front of
12	5	1	my wife s
13	4	1	a little bit

Rank	Freq	Range	N-gram
1	9	1	i didn t
2	7	1	out of the
3	6	1	i don t
4	6	1	in front of
5	6	1	it was a
6	6	1	she didn t
7	5	1	had a dream
8	5	1	i had a
9	5	1	i had a dream
10	5	1	my wife was
11	5	1	that she was
12	4	1	a piece of
13	4	1	didn t you

- 형태만으로는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려움 (그램 분석-> 고상화 x)
- 데보라 스미스 I did not 안 쓴 것이 특징.
- 구글의 I did not 의 빈도 압도적

<결론>

- 양적 질적 빈곤화:기계번역이 인간번역 대비 빈곤화 경향이 크다.
- 합리화: 축약형, 따옴표의 빈도 파악을 통해, 기계번역의 원문형태 보존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문맥파악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 이완화와 리듬 파괴: 데보라 스미스, 구글, 파파고 3종의 번역이 리듬 파괴 성향을 보였지만,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에서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

⇒기계번역 문학 적용 어려움

⇒보조적 역할조차 회의적: ISO 표준 참조

⇒단문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의의> 문학의 기계번역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진단

현 시점의 기계번역 객관적 현실 반영 및 한계 지적

기계번역 오역중심 연구에서 탈피

한계> 소규모 원문 비교, 일반목적 엔진 사용, 정량적 접근

추후 연구> 병렬 텍스트 비교를 통한 연구 강화, 기계번역 한계 및 개선 탐구

<참고자료>

- 마승혜. (2017). 기계화되기 어려운 인간 능력과 문학번역 능력 비교· 고찰 및 논의. 통번역학연구, 21(3), 55-77.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이향. (2008). 베르만의 형태의 (Lettre) 개념 속에 드러난 번역가의 정체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429-450.
- 최윤영. (1996). 기계번역과 문학번역. 번역연구, 4, 51-61.
- Berman, A. (2009).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Vol. 6)*.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Besacier, L., & Schwartz, L. (2015). Automated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a pilot study.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Workshop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for Literature* (pp. 114-122).
- Castilho, S., Moorkens, J., Gaspari, F., Calixto, I., Tinsley, J., & Way, A. (2017). Is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e new state of the art?. *The Prague Bulletin of Mathematical Linguistics*, 108(1), 109-120.
- Hutchins, J. University of East Anglia. Norwich, "Current commercial machine translation systems and computer-based translation tools: system types and their uses"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
- Toral, A., & Way, A. (2015). Machine-assisted translation of literary text: A case study. *Translation Spaces*, 4(2), 240-267.
- Toral, A., & Way, A. (2018). What Level of Quality can Neural Machine Translation Attain on Literary Text?. arXiv preprint arXiv:1801.04962.
- Voigt, R., & Jurafsky, D. (2012). Towards a literary machine translation: The role of referential cohesion. In *Proceedings of the NAACL-HLT 2012 Workshop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for Literature* (pp. 18-25).